DEVELOPING PASTORAL CARE TO RESOLVE CONFLICTS AMONG SENIORS, OLD AND NEW MEMBERS, IN CHURCH PROGRAMMING

A Professional Project

presented to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Junghwan Lee

May 2021

This Professional Project completed by

Junghwan Lee

has been presented to and accepted by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of the

DOCTOR OF MINISTRY

Faculty Committee

Yong Hwan Kim, Chairperson

Namjoong Kim

Dean of the Faculty

Sheryl A. Kujawa-Holbrook

May 2021

ABSTRACT

DEVELOPING PASTORAL CARE TO RESOLVE CONFLICTS AMONG SENIORS, OLD AND NEW MEMBERS, IN CHURCH PROGRAMMING

by

Junghwan Lee

"What do the congregants experience in the Silver Generation Senior Academy?" Starting with this question, I will perform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the current members of the Silver Generation Senior Academy, an elderly ministry at a church in South Korea. First, I will identify various conflicts and problems experienced in the Silver Generation Senior Academy. Next, I will discuss how the Silver Generation Senior Academy has sought out ways to effectively fulfill the spiritual and intellectual needs of the participants through healing, recovery, fellowship, and sharing within the church community.

To this end, I will divide the members of the church in South Korea into existing and new believers and collect data through in-depth interviews about what they experience via their individual participation in the Silver Generation Senior Academy. After that, I will analyze the results based on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amo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Based on this, I will present a proposal for adapting the meaning and direction of pastoral care programs for the Silver Generation Senior Academy. This study intends to be used as part of a broader effort to restore the community of the church through pastoral care centered on hospitality theology.

Key Words: Silver Generation, Hospitality Theology, Healing and restoration, Senior Academy

국문 초록

노인들을 위한 교회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기존 신자와 새 신자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을 위한 목회적 돌봄: 환대신학을 중심으로

by

Junghwan Lee

"O 교회 실버세대 시니어 아카데미를 통해서 성도들은 무엇을 경험하는가?" 이 질문을 시작으로 현재 실버세대 시니어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그 안에서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질적 연구를 하였다. 이를 위해 나는 먼저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서 경험하는 갈등 상황과 문제점들을 파악하였다. 또한,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시니어 아카데미가 참여자들의 영성과 지성,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친교와 나눔을 효과적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O 교회의 성도들을 기존 성도들과 새신자들로 구별하여 그들이 각각 실버세대 시니어 아카데미에 참여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후 질적연구방법 중 현상학적 방법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현재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버세대 시니어 아카데미에 대하여 목회 돌봄의 의미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실버세대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서 경험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환대 신학을 중심으로 목회 돌봄을 통해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해 나가는 데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키 워드: 실버세대, 환대 신학, 목회 돌봄, 치유와 회복, 시니어 아카데미

SUMMARY

For the past three years, I have been in charge of the Silver Generation Senior Academy, a ministry for the elderly at a church in South Korea. As the Korean population continues to age, this phenomenon is also present within Korean churches and now churches are experiencing additional levels of aging beyond the current rate. Despite these shifts, the reality of pastoral ministry is that most churches lack ministerial directions and programs for the elderly. With this context in mind, the church that I'm currently serving started the Silver Generation Senior Academy for the explicit purpose of providing pastoral care for elderly members of the church. There are various programs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fellowship and sharing and fulfilling the spiritual and intellectual needs of the participants.

Matthew 22:36-40 states, "Teacher, which is the greatest commandment in the Law?" Jesus replied,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And the second is like i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hang on these two commandments." The central theme of the Bible is love. We know through the Ten Commandments, as well as the Bible in its entirety, that it is God's will that we practice love as Christians by loving God and loving our neighbors. Therefore, by understanding that our neighbors are made in the image of God, we must practice love and hospitality throughout our lives. The Silver Generation Senior Academy at my church strives to fulfill this purpose by practicing love and hospitality for the elderly.

This project analyzed the conflicts that occurred in the Silver Generation Senior Academy. I accomplished this by conducting a qualitative study on conflict healing and hospitality centered in pastoral care. I hope that this research will be seen as a starting point for pastoral care for the elderly using Christ's love and hospitality as examples.

국문요약

나는 현재 O 교회 실버세대 시니어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담당하여 3 년째 진행해 오고 있다. 한국사회가 고령화 됨에 따라 한국교회 안에도 이미 고령화가 시작되었고, 현재는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는 실버세대에 대한 목회 방향성과 사역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것이 목회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O 교회는 교회 안에 속한 실버세대 새신자들을 위한 목회 돌봄을 목적으로 '실버세대 시니어 아카데미'를 개강하여 진행하였고, 크게 두 가지, 참여자들의 '영성'과 '지성', '친교와 나눔'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마태복음 22 장 36-40 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36-40)에서 나타나듯이 성서의 핵심 주제는 사랑이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서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하며, 사랑과 환대를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별히 O 교회는 이러한 사랑과 환대를 실천하기 위하여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실버세대 시니어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실버세대 시니어 아카데미를 통해서 성도들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시작으로 O 교회의 실버세대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 나타나는 갈등에 대해 분석하고, 갈등 치유와

환대적 목회 돌봄에 대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가 무엇보다도 노년 세대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환대 영성을 통한 목회 돌봄이 한국교회 안에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Chapter Ⅰ

서론
(Introduction)

A. 문제제기

한국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한국 교회도 고령화가 시작되었고,[1] 현재는 초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교회 안에서 노년세대 (이하 실버세대)에 대한 목회 방향성과 사역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목회 현실이다.[2] 이런 상황에서 교회 안에 속한 실버세대에 대한 목회 돌봄을 위해 개설된 '실버세대 시니어 아카데미'(이하 시니어 아카데미)는 실버세대인 기존 성도들과 새신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영성과 지성, 친교와 나눔을 통해 복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 또한, 교회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임을 경험하게 함과 동시에 실버세대가 교회 안에서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서 '함께함'이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효과적인 시니어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실버세대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 필요와 시니어 아카데미의 목적을 중심으로 영성을 위한 예배, 실버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강의, 친교와

---

[1] 고령화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국제연합은 65 세 이상의 인구가 7%를 넘는 사회를 고령화(aging) 사회, 14%를 넘는 사회를 고령(aged)사회라고 한다. 21 세기 정치학대사전, "고령화," accessed January 2. 202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26164&cid=42140&categoryId=42140.

[2] 이 연구에서 노년세대는 65-70 세 이상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규정한다. 65-70 세의 기준은 교회 안에서 직분자 은퇴연령과 관련이 있다. 현재 장로교 통합측은 직분에서 은퇴하는 연령을 자원은퇴 65 세, 은퇴 70 세로 규정하고 있다.

[3] 여기에서 '영성'이란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나눔을 위한 레크레이션 등을 기획하여 매주 1 회씩, 1 년에 2 학기로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설문조사 결과는 이것들 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실버세대 중심의 목회라는 점을 기준으로 예배, 강의, 친교와 나눔, 이 3 가지로 선택을 하였다. 처음에는 기존 성도들을 비롯하여 새신자들 역시 참여율이 좋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정착해 가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교회 안에서 참여자들의 모습과 상담을 통해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서 영성과 지성, 친교와 나눔이 불균형을 이루고, 특히 레크레이션을 통한 친교와 교제 쪽으로만 치우쳐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서 새신자로 참여한 성도들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O 교회[4] 안에 소속감을 느끼고 신앙생활에 정착해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기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결국 시니어 아카데미의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아카데미에서 참여자들이 '갈등'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나는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시니어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하여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서 성도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시니어 아카데미가 영성과 지성, 친교와 나눔,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B. 논지와 토론

이미 많은 교회들이 실버세대에 대한 목회사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살표보면 레크레이션 등과 같은 친교 중심이거나 효도관광 등과 같은 프로그램 등으로 목회

[4]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교회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돌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프로그램 중심의 목회 프로그램이 갖는 장점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실버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겪는 '소외'와 '상실' 등과 같은 경험들을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목회 돌봄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그의 저서 *나를 따르라-그리스도의 제자직*에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시초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고찰하고 있다. 그는 "교회는 몸을 가진 인격"[5]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는 성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유대인과 헬라인, 더 나아가 남녀노소를 뛰어넘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관계를 경험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공동체는 어떠한가? 고령화가 점점 심화되어 가는 한국 사회와 교회의 상황 속에서 특별히 실버세대에 대한 목회 돌봄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교회 구성원의 비율이 실버세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더 이상 '실버세대에 대한 목회'는 교회 안에서 방관하거나 특수한 목회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교회 안에서 '핵심적인 목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현재 교회 안에서 중점적으로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다음세대에 대한 사역들을 약화시키자는 의미가 아니라 실버세대에 대한 목회와 함께 균형적으로 이루어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실버세대에 대한 많은 이해와 목회 프로그램들에 대한 선행연구가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단순히 실버세대에 대한 목회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거나, 영성적인 측면[6]이 포함되지 않은 형태, 영성과 지성, 친교와 나눔의 균형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나눔과 친교'에 치우쳐져 있거나, 사회복지

[5] Dietrich Bonhoeffer, *Nachfolge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의 제자직*, trans. 손규태 and 이신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275, 392.

[6] 여기에서 영성적인 측면이란, 실버세대를 위한 예배와 일대일양육을 의미한다.

프로그램들과 유사한 형태로 연구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연구들도 그 나름의 상황에 따른 연구가치가 분명히 있지만, 본 프로젝트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영성과 지성, 친교와 나눔의 균형을 이루며, 기존 성도들과 새신자들이 시니어 아카데미를 통하여 경험하는 내용들에 대한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실버세대에 대한 목회 방향성을 먼저 설정하고, 에이지즘(Ageism)[7]과 환대 신학을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목회적 필요와 내용들에 대한 치유와 변화에 대한 내용을 논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으로 현재 O 교회에서 진행 중인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 나타나는 갈등 상황들을 분석하고, 환대 신학을 중심으로 실버세대에 대한 목회돌봄을 치유와 변화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하고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교회 안에서 실버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갈등 상황들,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공경' 받는 것 같지만 오히려 '소외'를 경험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겨왔지만, 이제는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상황 등에 처해 있는 실버세대에 대하여 환대 신학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C. 용어 정리

1. 실버세대

이 연구에서 실버세대는 65-70세 이상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규정한다. 65-70세의 기준은 교회 안에서 직분자 은퇴연령과 관련이 있다. 현재 장로교 통합측은 직분에서 은퇴하는 연령을 자원은퇴 65세, 은퇴 70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버세대는 교회의 주체에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주변부로 밀려나는 세대로 정의할 것이다.

---

[7] 에이지즘(Ageism)이란, 연령차별주의로써 연령을 이유로 개인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소외시키는 사회적 이념 및 행위를 뜻한다.

2. 함께함

이 연구에서 ‘함께함’이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성도 간의 교제(κοινωνία, 코이노니아)를 의미하며, 특별히 실버세대 시니어 아카데미의 목적과 방향성을 나타낸다. 실버세대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서 기존 성도들과 새신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된 교제인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성과 지성, 친교와 나눔 속에서 복음과 구원의 확신을 경험할 수 있다.

3. 에이지즘(Ageism)

에이지즘(Ageism)이란, 연령차별주의로써 연령을 이유로 개인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소외시키는 사회적 이념 및 행위를 뜻한다. 이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노인차별로 이해할 수 있으며, 보다 큰 의미에서는 연령 차별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상대방의 나이의 많고 적음에 대한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 인한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다.[8]

이러한 에이지즘은 에이지즘의 핵심문제, 한 개인을 향한 부정적 요소가 오직 그 사람의 많은 나이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바라본다는 점과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을 사회적 문제로 생각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4. 환대 신학

예수는 마태복음 25 장 40 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40)라고 이야기하며,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또한, 마태복음 25 장 31-36 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8] 김용환, “Aging, Ageism, Generational Conflict, Healing And Reconciliation in Korean Context” (lecture, Doctor of Ministry,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Claremont, CA, June 3, 2019).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마태복음 25:31-36)를 통해서 주리고, 목마르고, 주린 자를 환대하는 사람들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대를 실천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소외와 아픔, 상실 등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교회 밖의 누군가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연수, 직분, 나이와 성별 등으로 인해 누구라도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그들에게 손 내밀어 그들로 하여금 환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대에 대하여 존 쾨닉(John Koenig)은 환대란 치유가 확산되는 공간이라고 말한다.[9] 환대는 영적 공동체 내에서의 치유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공동체 안에서 나눔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나타나는 다양한 차원의 관계회복을 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환대가 경험되어지는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경계를 허물고, 함께 모여 소속감과 함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영적인 의미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환대의 신학은 실버세대 시니어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에 대한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9] John Koenig, *New Testament Hospitality 환대의 신학*, trans. 김기영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9.

D. 청중

본 연구의 주된 청중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버세대 목회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목회자들이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실버세대에 대한 목회 프로그램을 진행해보고, 그에 대한 어려움과 한계,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상황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목회자들이다. 둘째, 현재 교회 안에서 실버세대 목회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거나 진행 예정 중인 평신도 담당자들이다. 더 나은 실버세대 목회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앞으로 계획 중이라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교회 안에 있는 실버세대를 비롯한 모든 젊은세대들이다. 특별히 에이지즘을 바탕으로 한 실버세대에 대한 이해는 젊은세대들로 하여금 진정한 의미의 환대를 실천하기 위한 밑바탕이 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소외'의 자리에 있는 실버세대들을 교회공동체 안으로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결국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실버세대를 위한 목회 돌봄이 효과적으로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E. 연구의 한계와 제한성

이 연구는 O 교회 시니어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의 경험에 대한 심층 면담을 통하여 환대 신학을 바탕으로 실버세대와 함께 하는 목회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그러므로 O 교회의 실버세대에 대한 목회 프로그램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문제라는 특성으로 인해 기존까지 연구되어 왔던 타 교회의 실버세대 목회 프로그램을 연구하거나 분석하지는 않는다. 또한, 모든 교회의 실버세대에 대한 목회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적인 진행방법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현재 내가 담당하고 있는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서의 기존 성도들과 새신자들 사이의 갈등 문제, 그들이 경험하는 프로그램 안에서의 어려움, 제한점, 교회 안에서의 정착에 대한 고민 등을 확인함으로써 보다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는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F. 독창성과 공헌

이 연구가 가지고 있는 독창성과 공헌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론을 바탕으로 기존에 실버세대에 대한 프로그램 중심의 목회를 비판적인 관점으로 분석함으로써 실버세대 목회에 대한 분명한 목회 방향성과 대안을 제시한다. 둘째, 이 연구는 실제 O 교회 시니어 아카데미에 참여한 성도들의 경험들에 대한 심층면접 자료와 더불어 학술적, 신학적인 이론들을 통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회 안에서 기독교 공동체성의 본래적의 의미 실현과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이 연구는 더 나아가 교회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실버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연령차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교회가 본질적으로 회복해야할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에 대하여 '환대 신학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한다. 넷째, 노인간의 갈등을 통해 에이지즘을 제시한다.

Chapter Ⅱ

질적 연구와 관련된 방법론과 연구방법
(The Method and Procedure of the Qualitative Research)

A.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현재 O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니어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찰함으로써 실버세대에 대한 목회 돌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시니어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나는 질적 연구방법론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왜냐하면 질적 연구는 대다수를 대상으로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양적 연구와 다르게 심지어 연구 대상이 1 명일 수도 있을 만큼 소수의 특정한 사례들에 관한 연구도 가능하게 하며,[10] 이것은 연구자 자신의 경험과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이다.[11] 그러므로 질적연구는 O 교회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 참여하는 실버세대들의 다양한 경험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감정과 태도, 특별히 그들이 겪고 있는 갈등상황과 문제점, 한계 등을 파악 수 있다는 점에서 적합하다. 또한, 연구 대상자들 안에 감추어졌거나 소외된 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함으로써 치유와 변화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러한 질적 연구 방법론 중에서도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인간의 체험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그 체험을 바로 그 체험이게 만드는 본질적인 구성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분명하게 기술하고, 이를 통해 체험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다.[12] 또한,

---

[10]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I: Bricoleur*, 2nd ed.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4), 126.

[11] 서근원, *공동체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시대의 삶과 문화와 교육, 그리고 질적 연구* (파주: 교육과학사, 2013), 345.

[12]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Ⅱ: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90.

현상학적 연구의 목적은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며, 경험을 인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대상이 주된 연구 내용이 된다. 그러므로 현상학적 연구는 현재 O 교회 실버세대 시니어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적합한 방법이다.

또한, 나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심층 면담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것은 실버세대 시니어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경험과 느낌을 현상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 내용들을 수집, 정리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심층 면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실버세대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서 경험한 것들을 파악하고, 그 경험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내부자의 입장에서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13]

심층 면담은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으로 진행하였으며, 다음에 나오는 〈표 1〉과 같은 질문들로 심층 면담 가이드를 작성해 보았다.

〈표 1〉 심층 면담 가이드

구 분	질 문 내 용
1	O교회에서 기존에 신앙생활하시던 분이신가요,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신가요? 혹시 기존에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시라면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2	O교회 실버세대 시니어 아카데미에 참여하신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되셨나요?

[13]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IV: Case Studie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562.

3	O교회 안에서 참여 중인 시니어 아카데미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4	그러한 경험을 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5	실버세대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서 예배와 친교의 비중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6	실버세대 시니어 아카데미 공동체 안에서 관계회복을 경험하고 있나요?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7	만약 갈등상황이나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을 예방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8	O교회는 실버세대에 대한 목회적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9	O교회에 실버세대에 대한 목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	앞으로 실버세대에 대한 목회사역이 어떠했으면 좋겠는지 혹시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B. 연구 참여자

이 연구의 심층 면담에 참여하는 연구 참여자는 현재 내가 목회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 소속되어 있는 O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시니어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는 65-70 세 이상의 실버세대 성도들이다. 나는 먼저 O 교회 시니어 아카데미에 참여 중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에 대한 공개모집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 면담 시간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한 후, 먼저 신앙생활의 기간과 정도에 따라 크게 기신자와 새신자로

나누었으며, 65-70세 이상의 실버세대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여기에서 65-70세라는 연령의 기준은 자원 은퇴 65세와, 정년 은퇴 70세로 규정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규정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 남자와 여자, 직분, 고등학교 졸업여부 등의 기준을 세운 후 일대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14] 왜냐하면 동일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더라도 각 개인의 성별과 연령, 신앙생활의 정도, 학력에 따라 관점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정 기준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다양한 경험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실버세대 특성상 학력에 대한 부분과 O교회가 도시에 있는 교회라는 점으로 인해 더욱 다양한 연구 참여자들을 선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힌다. 이러한 기준으로 선정된 약 14명의 연구참여자들은 다음에 나오는 〈표 2〉와 같다.

〈표 2〉 연구참여자들의 기본 인적 사항

구 분	성 별	나이(만)	직 분	학 력	신앙생활의 기간에 따른 구분
연구참여자 1	남	75	은퇴장로	고졸	기신자
연구참여자 2	남	68	집사		기신자
연구참여자 3	남	67	장로	고졸	기신자
연구참여자 4	여	72	권사		기신자
연구참여자 5	남	66	권사	고졸	기신자
연구참여자 6	여	71	집사		새신자
연구참여자 7	남	65	집사		새신자
연구참여자 8	여	69	집사	고졸	새신자

[14] 여기에서 학력은 최대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들만 〈표 1〉에 '고졸'이라고 표시하였다. 빈칸은 고졸이하를 의미한다.

연구참여자 9	남	76	집사	고졸	새신자
연구참여자 10	여	64	집사	고졸	새신자
연구참여자 11	여	71	없음		새신자
연구참여자 12	남	76	집사		기신자
연구참여자 13	여	69	없음		새신자
연구참여자 14	여	70	없음		새신자

나는 먼저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보여주고, 연구의 목적과 진행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연구자와 연구자의 지도교수에 대한 소개와 연락처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후에라도 언제든지 연구 참여자가 원하면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고, 비밀 보장을 위해 익명으로 사용될 것임을 안내하였다. 또한, 심층 면담을 하는 동안 모든 내용은 녹음될 것이며, 녹음한 내용은 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것을 안내하였다. 녹음한 심층 면담 자료들은 암호화된 연구자의 개인 컴퓨터에 개별 폴더를 만들어 암호를 설정하여 관리할 것이며, 연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특별히 현재 신종 코로나 19 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직접 만나 심층 면담을 하는 것을 걱정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줌(Zoom)과 카카오톡, 페이스 타임과 같은 SNS 를 활용한 화상채팅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면담 방식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2 차, 3 차 면담이 필요한 경우 보다 쉽게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면 방식의 면담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거리감이 느껴지고, 연구 참여자의 세밀한 표정과 감정 등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연구 참여를 결정하였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 연구 참여자와 미리 통화를 하여 면담을 위한 장소와 날짜, 시간 등을 논의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연구 참여자가 있는 곳이나 거주지 근처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교회를 면담 장소로 희망할 경우에는 교회의 온라인 예배 녹화 시간을 피하여 면담 일정을 조정하였다. 또한, 목회자와 성도라는 직분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정장이 아닌 편안한 복장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교회 안에서 면담이 진행될 경우에는 공개적이지만 개인의 대답들이 보호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O 교회 상담실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가 이 공간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공간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무엇보다도 심층 면담 전 연구 참여자들과의 라포(rapport) 형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15] 연구를 위한 질문과 대답 외에도 개인의 안부와 근황 등을 물으며 친밀감과 신뢰감을 기반으로 면담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답변에 대한 공감과 경청의 태도를 유지하였다.

녹음한 심층 면담 내용은 연구를 마친 후 즉시 파기할 것을 안내하였다. 심층 면담을 마친 후, 연구 자료들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필사는 연구자가 직접하였고, 면담 내용의 요약과 연구 결과는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하였다. 또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기관윤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사를 받은 후 승인(승인번호: 2020-008)을 받은 후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

[15] 라포(rapport)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호 이해와 공감을 통해 형성되는 신뢰관계와 유대감을 의미한다.

C. 연구 진행과정

나는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2020 년 11 월 20 일부터 12 월 23 일까지 심층 면담을 진행한 후 자료를 정리하였다. 심층 면담은 주로 O 교회 상담센터에 있는 상담실을 활용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거주지 근처와 신종 코로나 19 로 인한 화상통화 등을 통해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따라 1 회부터 2-3 회까지 추가 면담을 하기도 했으며[16], 면담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질적 연구 방법론 중 현상학적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인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연구현상에 대한 충분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는 포화상태까지 수집하였다.

나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담에 대하여 비밀 유지와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을 약속하였으며, 연구 참여자가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면담을 중단하거나 쉬었다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연령과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약 30 분에서 1 시간정도 심층 면담이 진행된다는 점과 모든 내용이 녹음된다는 점, 녹음한 내용이 외부에 절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나는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지오르지(Giorgi)'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방법은 면담 결과를 의미단위로 요약하고, 주제를 정한 후 구성요소를 통하여 범주화 시키는 방법으로써, 실버세대가 면담을 통해 이야기하는 경험들과 느낌, 내용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경험의 의미를 충분하게 밝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실버세대가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서 경험한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지오르지의

[16] 첫 면담시 연구 참여자가 면담과 질문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하지 못하였다. 또한, 실버세대의 특성상 집중력과 청력 등과 같은 한계들로 인해 추가 면담이 불가피했다.

분석방법인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무엇보다도, 지오르지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다면적, 개방적, 심층적 질적 면담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의미별로 범주화하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이를 학문적 용어로 전환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현상학적 자료 분석 절차는 자료의 검토, 의미나 주제의 유출, 의미나 주제 단위로 진술을 통합, 의미나 주제 단위로 묶인 자료에 대한 성찰, 의미나 주제에 대한 통합적인 구조적 진술의 구성으로 진행한다. 첫째, 자료의 검토는 수집된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읽고 그 안에 포함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둘째, 의미나 주제의 추출은 발견된 의미와 주제를 범주화하는 작업이다. 셋째, 의미나 주제 단위로 진술을 통합하는 것은 범주화된 의미나 주제 단위의 진술들을 따로 묶어 여러 개의 의미 단위를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넷째, 의미나 주제 단위로 묶인 자료에 대한 성찰은 의미나 주제 단위로 묶인 각각의 의미 단위에 대해 성찰하여 그것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미나 주제에 대한 통합적인 구조적 진술의 구성은 각각의 의미 단위에 대해 성찰하여 그 의미나 주제에 대한 개념화를 하는 것이다.[17]

이러한 분석 절차를 기본으로 하여 나는 심층 면담의 내용을 지오르지의 연구 방법을 따라 분석하였다. 지오르지의 분석 절차는 다음에 나오는 〈표 2〉와 같다:

[17]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Ⅱ: Methods*, 110.

〈표 3〉 지오르지의 분석 절차

구 분	질 문 내 용
1	면담에서 녹음한 파일을 듣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사본을 읽는다.
2	각각의 필사본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분석, 파악하고 반성한다.
3	각각의 필사본 속에 있는 의미의 단위들을 파악한다.
4	필사본에 있는 각각의 의미 단위와 관련된 진술들을 다시 묶고 재기술한다.
5	주제들을 밝히기 위해 모든 참여자 전반에 걸쳐서 각각의 의미에 관해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반성한다.
6	각각의 불변의 주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유형을 분류한다.
7	참여자에게 유효성을 확인한다
8	모든 진술들을 종합한다.[18]

이러한 심층 면담 및 질적 연구 방법은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듣고 그들이 시니어 아카데미를 통하여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적합하다. 그러나 이러한 면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시니어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성도들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내려놓는 작업, 판단중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심층 면담을 하기에 앞서 작성한 판단중지의 내용은 다음에 나오는 〈표 3〉과 같다.

18 Ibid., 107.

〈표 4〉 판단중지 내용

구 분	내 용
1	연구 참여자는 시니어 아카데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2	연구 참여자는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시니어 아카데미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3	연구 참여자는 시니어 아카데미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을 것이다.
4	연구 참여자는 시니어 아카데미의 친교의 시간을 통해 충분한 교제를 나누고 있을 것이다.
5	연구 참여자는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서 갈등상황을 겪고 있을 것이다.

Chapter Ⅲ

질적 연구 결과 및 해석
(The Result and Interpretation of the Qualitative Research)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한 14 명의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수집한 진술과 내용들을 질적 연구 방법론 중 현상학적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심층 면담의 내용을 지오르지(Giorgi)의 연구방법에 따라서 각각의 의미단위를 도출하고, 주제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그 주제들을 구성 요소로 묶어 범주화 하는 과정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O 교회의 실버세대가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갈등 상황들을 바탕으로 환대 목회 돌봄의 필요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실버세대 신앙교육 프로그램인 시니어 아카데미에 대한 실버세대의 생각과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시니어 아카데미에 대한 방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는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총 19 개의 의미 단위로 요약하였고, 이를 10 개의 주제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10 개의 주제를 8 개의 구성요소로 만든 후 총 4 개의 범주, '기신자와 새신자가 겪고 있는 상대적 소외감', '교회 직분 차이에 따른 갈등', '학력과 사회적 지위로 인한 갈등', '영성을 추구하는 그룹과 재미를 추구하는 그룹 간의 갈등'으로 결과를 도출해 내었으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에 나오는 〈표 5〉 ~ 〈표 9〉와 같다.

〈표 5〉 기신자와 새신자가 겪고 있는 상대적 소외감

의미단위의 요약	주제	구성 요소	범주
1. 새신자와 기신자 사이의 관계적 어려움 2. 예배와 신앙생활 등 기독교 문화에 낮선 새신자들 3. 새신자 중심으로 치우쳐진 시니어 아카데미 예배와 커리큘럼 4. 새신자 위주의 프로그램 진행으로 인한 기신자들의 소외감 경험 5.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고 싶은 마음 발견 6. 시니어 아카데미를 통한 영적성장과 성숙, 친교에 한 기대감	1. 신앙생활의 기간이 짧은 새신자들에게는 기신자들과의 관계적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새신자들은 예배와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 익숙하지 못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3. 새신자 중심의 예배와 커리큘럼으로 인해 오히려 기신자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4. 실버세대라는 비슷한 연령대라는 공통점은 있으나 함께 어우러지지 못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다.	1. 신앙생활의 기간에 따른 소외감 경험 2. 새신자에게 집중된 예배와 커리큘럼으로 인한 아쉬움	A. 새신자와 기신자가 겪고 있는 소외감

〈표 6〉 교회 직분 차이에 따른 갈등

의미단위의 요약	주제	구성 요소	범주
1. 직분의 유무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 2.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서 직분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가 있다는 생각 3. 교회 안에서 직분에 대한 이해를 지위의 높고 낮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 4.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직분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5.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직분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1. 실버세대라는 공통분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서 직분의 유무에 따른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2. 직분의 유무에 따라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서 영향력의 차이를 경험하고 있다. 3. 직분이 없는 성도들은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서 자신들이 무시를 받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1. 교회 안에서 직분의 유무에 따른 차별에 대한 경험 2.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서 직분의 차이로 인한 갈등상황 경험	B. 교회 직분 차이에 따른 갈등

〈표 7〉 학력과 사회적 지위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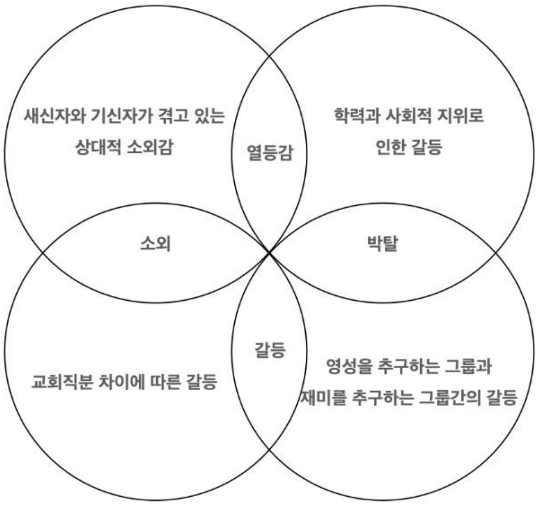
의미단위의 요약	주제	구성 요소	범주
1. 학력에 따라 상대적 열등감을 경험되고 있음을 발견 2. 사회적 지위에 따라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	1.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서 상대적 열등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2.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서 리더자 선정에 대한	1. 학력과 사회적 지위의 차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C. 학력과 사회적 지위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3. 경제적 차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음 4.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	불평등함을 경험하고 있다.	2. 평등한 대우에 대한 필요성	

〈표 8〉 영성을 추구하는 그룹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룹 간의 갈등

의미단위의 요약	주제	구성 요소	범주
1. 영적성장과 성숙에 도움이 되는 커리큘럼을 선호함 2. 친교를 통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커리큘럼을 선호함 3. 보다 깊이 있는 신앙교육에 대한 필요성 4.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룹이 영성 추구하는 그룹에게 무시를 당한다고 느낌	1. 영성을 추구하는 그룹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룹간에 갈등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1. 영성을 추구하는 그룹 2.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룹	D. 영성을 추구하는 그룹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룹 간의 갈등

〈표 9〉 4 가지 범주화



A. 새신자와 기신자가 겪고 있는 상대적 소외감

나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서 새신자 그룹과 기신자 그룹 모두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서 상대적인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새신자 그룹은 예배를 포함한 기독교 문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익숙하지 못하여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찬양과 기도를 하는 시간에도 너무 어색하고, 대부분 처음 보고 듣는 내용들이 많아 시니어 아카데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제 막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다보니 기신자들과의 관계적인 기반이 없어 함께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1]
여기는 오랫동안 다녀야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격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1-2년 정도 참여해서는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는 참여해야 다른 사람들과도 친해질 수 있고, 편하고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도 없고 말도 걸어주지 않아서 마음이 정말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연구 참여자2]
저는 찬송가 가사도 모르고, 성경말씀도 거의 몰라서 시니어 아카데미에 오면 예배시간이 참 어렵고 불편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익숙하고, 이해하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모두가 다 나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잘아는 것 같고, 성경도 잘아는 것 같고 찬송가도 잘아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7]
O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예전부터 꾸준하게 시니어 아카데미에 참여해 오신 분들끼리만 즐겁게 이야기해서 너무 속상해요. 저도 함께 하고 싶은데 왠지 저를 경계하고 따돌린다는 느낌도 가끔 들고, 거의 먼저 말을 걸어주는 사람들도 없어서 시니어 아카데미에 참여는 하지만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함께 어울리기보다는 새신자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8]
교회문화도 낯설고 성경지식도 없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게 부담되요. 나는 70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교회에 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예배와 모임이 너무 어색하고 힘들어요. 그런데도, 나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함께 모여 있어서 참여하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너무 많이 어색하지만요.

이에 반해 기신자 그룹의 경우 새신자 중심으로 치우쳐진 예배와 커리큘럼 진행 등으로 인해 오히려 자신들이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서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시니어 아카데미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지루함과 참여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회의감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시니어 아카데미의 목적은 큰 틀에서 신앙 성장과 성숙, 친교를 통한 실버세대의 돌봄 목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O 교회 시니어 아카데미의 경우 비슷한 연령대의 실버세대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적과는 다르게 신앙 성장과 성숙, 관계의 측면에 있어서 새신자 그룹과 기신자 그룹 모두 각각 상대적인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5]
나는 시니어 아카데미가 새롭게 시작할 때부터 다닌 초창기 멤버인데, 예배와 프로그램이 너무 새신자들에게만 치우쳐 있는 것 같아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저처럼 이곳에 오랫동안 참여한 사람들을 위한 예배와 강의, 프로그램들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같은 실버세대라도 신앙생활의 기간이나 필요 등에 따라 반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 참여자10]
요즘은 새신자들이 이 시니어공동체에 더 많이 들어오니까, 모든것이 새신자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분위기도 예전과는 사뭇 다르고요. 그래서 시니어에 오면 예전에는 마음이 편안했는데, 지금은 저도 적응하기 바쁜 것 같아요. 어떨때는 전혀 다른 공동체에 온 것 같은 착각도 들어요.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섬에 따라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서 실버세대는 다양한 측면에서 소외감과 상실감, 열등감 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실버세대가 자신의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불안정성, 사회와 교회 안에서의 역할과 관계 상실 등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들을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서도 새신자와 기신자 모두 상대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앞에 언급한 시니어 아카데미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실버세대는 이곳에서조차 소외감과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심층면담을 하기 전 나는 실버세대에 대한 판단중지 내용 중에 '실버세대는 시니어 아카데미의 예배와 친교에 대하여 은혜와 충분한 교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정리하였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들은 시니어 아카데미에 대하여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 예배와 친교, 커리큘럼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실버세대를 위한 신앙 성장과 성숙, 친교와 돌봄의 사역인 시니어 아카데미에서조차도 그들은 소외감과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사역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모습이 되어버렸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실버세대를 위해 교회는 그들이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소외감과 상실감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B. 교회 직분 차이에 따른 갈등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실버세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신앙생활 기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기신자들의 경우 적게는 20 년에서부터 60 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 온 사람들도 있고, 새신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막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앙생활 경험과 기간으로 인해 심층 면담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 안에서의 직분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새신자들의 경우 직분에 따라 교회 안에서 대우받고, 존중받는 모습을 봐왔던 경험들로 인해 직분이 있어야 무시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그들은 교회 직분을 의식하며,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서조차 열등감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연구 참여자1]
>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직분이 없으면 나보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여길까봐*
> *마치 직분을 받은 사람처럼 신실하게 행동합니다. 기도도 큰 소리로 유창하게 하고*
> *찬송가도 잘 모르지만 큰 목소리로 부릅니다. 집사라고 말해야 나를 무시하지 않기에*
>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행동해요.*
>
> [연구 참여자2]
> *이곳에 오니 내가 장로였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어요.*
> *장로님은 사람들이 다 존경하니까.*
> *장로 직분이 이렇게 힘이 있을줄 몰랐어요. 내 친구들도 장로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 *그 친구들을 무시했는데, 장로직분이 교회안에서 이렇게 강력한줄 몰랐어요.*
> *요즘은 장로 직분이 부러울 따름이예요.*

실제로 새신자들은 자신들이 교회 직분의 유무로 인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교회 직분에 따라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서 역할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연구 참여자6]
> *이곳에서 리더를 하려면 적어도 안수집사는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 *나는 그냥 성도라서 명함도 못내밀어요.*
> *조장님들도 다 안수집사 아니면 권사직분을 받은 분들이예요.*

나는 몇 년전부터 교회에 다니기시작해서 직분을 받으려면 아직도 한참 있어야 하는데... 빨리 속성으로 직분을 받을수만 있다면 받고 싶어요.
그래서 직분자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연구 참여자9]
저는 이곳에 와서 교회 직분을 받고 싶어요.
직분이 없으니까 은근히 이 공동체에서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예권사를 받으려고 열심히 임직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직분이 없으면 함께하는데 큰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 가지는 본래의 의미와 목적과는 다르게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서는 오히려 직분으로 인해 새신자들이 차별과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면담을 통하여 실버세대인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서 사회적 위치와 역할을 잃어버림으로써 경험하고 있는 차별과 갈등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 안에서, 심지어 실버세대를 위한 시니어 아카데미라는 사역 프로그램에서조차 직분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버세대가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서 평등한 존재로 자신들이 인정받기를 바라고 있으며, 시니어 아카데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 학력과 사회적 지위로 인한 갈등

O교회 시니어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직분의 차이에 따른 차별 외에도 학력과 사회적 지위의 차이로 인한 갈등도 경험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학력과 경제력, 사회적 지위 등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들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3]
조별로 나눔을 하면 출신학교와 남편의 직장을 말하는데
나처럼 못배운 사람들은 자신있게 나눔을 못해요.
꼭 이곳에 와서까지도 학력과 젊을 때 직업을 말해야 하나...

누구는 어느대학 나왔고, 또 몇해전까지만 해도 어떤 큰 기업의 임원으로 있다가 퇴직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을때마다 기가죽고 내 자신이 초라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꼭 이런얘기를 해야하나요?

[연구 참여자4]
처음 온 분인데 이분이 대학교 교수님으로 은퇴하셨다는 말에 사람들은 그분을 다시 보면서, 대단한 분이 오셨다고 말했어요.
사실 제대로 학교에 다니지 못한 저는 기가 죽었어요.
누군 왕년에 잘 못나갔나?
사회에서 높은 사람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미움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학력, 예전 직업이나 자랑은 가급적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예배드리러 온 곳이잖아요.

[연구 참여자5]
시니어 아카데미가 마치면 고급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분들을 보면 전철과 버스를 번갈아 타고 다니는 내가 초라하게 여겨져요.
그리고 괜히 신경질이 나요.
나는 이곳에 오기위해 2시간동안 버스를 갈아타고 전철을 타고 오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딸이 승용차로 모시고 오는 것을 보면 참 부러워요.
언젠가 한번은 시니어 아카데미가 끝나고 비가 왔는데 우산을 쓰고 교회를 나오는데 조금 전까지 나와 함께 있던 분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니 내 신세를 한탄하게 되었어요.

시니어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는 실버세대들은 그 안에서 참여자들의 직업과 같은 사회적 위치와 학력, 경제력 등으로 인해 열등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회 안에서 경험해오던 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심층 면담 결과 교회는 사회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더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주어진 질문은 “O교회 안에서 참여 중인 시니어 아카데미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고 계신가요?”로써 동일했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답변을 들으며, 나는 오랜 시간 다양한 삶과 서로에 대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D. 영성을 추구하는 그룹과 재미를 추구하는 그룹 간의 갈등

위에서 언급한 새신자와 기신자가 겪고 있는 소외감, 교회 직분과 학력, 사회적 지위, 경제력 등으로 인한 열등감과 갈등 상황 외에도 연구 참여자들은 영성을 추구하는 그룹과 재미를 추구하는 그룹 간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것은 시니어 아카데미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신앙 성장과 성숙, 남은 삶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에는 예배와 경건의 시간 등 영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선호하였다. 이들은 시니어 아카데미를 실버세대의 영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기본을 이루는 말씀과 기도, 찬양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원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들의 삶이 아름답게 기억되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남겨주기를 바라는 욕구와 바램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연구 참여자11]
> *시니어 아카데미는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강의를 듣고 점심식사를 한 후 3부 레크레이션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에 온 만큼 예배드리고 더욱 경건한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싶고, 귀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이를 위해서 강의와 레크레이션보다는 성경공부나 찬양교실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열심히 예배드린 후 레크레이션을 하며 웃고 떠드는 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
> [연구 참여자13]
> *처음 시니어아카데미에 올 때 이곳에 오면 은퇴후 그동안 소홀했던 신앙교육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오면 예전에 경험했던 뜨거운 신앙을 회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곳에 오니 내가 생각했던것만큼 뜨거운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도 부르지만, 강의와 레크레이션 시간이 있어서 경건 시간은 많이 없습니다.*
> *이곳이 뜨거운 신앙회복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도 많잖아요. 이곳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곳이었으면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친교와 재미에 대한 필요를 느끼는 연구 참여자들은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서 남은 삶 속에서 필요한 유익한 강의와 레크레이션 등의 프로그램 등을 선호하였다.

평생을 힘들게 고생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신앙생활하며 달려왔으니 이제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서만큼은 편안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친교의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시니어 아카데미가 아니더라도 주일 예배를 비롯한 다양한 예배와 성경공부 시간, 기도모임 등의 사역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있는데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서도 영성 프로그램에 치우친다면 실버세대를 위한 시니어 아카데미 역시 또 하나의 영성 프로그램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서만큼은 실버세대들이 함께 모여 친교하고 삶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자12]
일평생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부르고 신앙생활했어요. 이제 나이든 우리에게는 평생 예배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더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교양강좌라든가, 건강운동이라든가, 재밌는 노래교실등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많이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교회에 오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우리 같은 노인들에게 유익한 강의나 재밌는 레크레이션을 해주었으면 해요.

[연구 참여자14]
시니어 아카데미에 오면 너무 좋고 행복한데, 거룩하고 경건한 몇몇 사람들이 재미를 찾는 우리같은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고 약간 무시할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분이 상할때가 있습니다. 예배시간에는 졸다가 즐겁게 노는 시간에는 너무 열심히 참여해서 그런지 약간 안좋은 색안경을 끼고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재밌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 시간을 기다립니다. 예배드리고 강의듣는 시간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점심빨리 먹고 즐거운 레크레이션 시간만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같은 연령대지만, 그들의 삶과 가치관, 필요 등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은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영성을 추구하는 그룹과 재미를 추구하는 그룹의 견해차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나는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갈등과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이것이 앞으로 시니어 아카데미가 극복해 나가야할 실버세대 목회의 과제로 여겨졌다.

위와 같이 심층 면담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실버세대를 위한 시니어 아카데미의 목적과는 다르게 그들은 그 안에서 다양한 갈등상황을 경험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크게 신앙생활의 기간에 따른 소외감, 직분의 유무, 학력과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 등의 차이로 인한 열등감, 자신의 필요에 따른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서의 그룹 간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이러한 결과들을 기반으로 실버세대가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갈등을 치유하고 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들에 대해 다음장에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Chapter Ⅳ

논의
(Discussion)

심층 면담과정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버세대 아카데미 안에서 새신자와 기신자 모두 자신들이 속한 상황에 대한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새신자들은 예배와 신앙생활, 관계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한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었고, 기신자들은 새신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니어 아카데미 커리큘럼에 대하여 자신들이 그 안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나는 수용(가까이하기)과 배제(거리두기)를 통한 실천적 프로그램을 이 장에서 소개하였다.

둘째, 나는 실버세대 아카데미 안에서 교회 직분 차이에 따른 갈등과 차별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교회직분자들은 우월의식을 가지고 실버세대 아카데미에 참여하였고, 소그룹 모임에서 직분이 없는 자들을 차별하였다. 교회안에서 직분이 없는 자들은 차별로 인한 상실감과 소외감을 경험하였다. 그로인해 그들은 실버세대 아카데미 공동체안에서 배척당하고 거절당했다고 느꼈다. 이에 나는 공동체안에서 호칭의 변화를 담은 실천적 프로그램을 이장에서 소개하였다.

셋째, 나는 실버세대 아카데미 안에서 '학력과 사회적 지위'로 인한 갈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심층 면담을 통해 만난 연구 참여자들은 실버세대 아카데미 공동체 안에서 사회에서 쌓은 이력들을 말하지 않고 지내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에 나는 밥상공동체라는 실천 프로그램을 이 장에서 소개하였다.

넷째, 나는 실버세대 아카데미 안에서 '영성을 추구하는 그룹과 재미를 추구하는 그룹 간의 갈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영성을 추구하는 그룹들은 레크레이션과 소그룹 활동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재미를 추구하는 그룹들은 예배와 성경공부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나는 영성과 재미의 균형을 담은 실천적 프로그램을 이 장에서 소개하였다. 나는 이러한 실버세대 아카데미안에서의 차별과 소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환대신학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였다.

A. 환대 신학에 대한 이론적 배경

환대(hospitality)는 현대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 특별히 여성, 외국인 노동자, 성소수자, 아동, 장애인 등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념으로 연구되고 있다.[19] 환대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호스페스(hospes)에서 왔는데, 이 말은 “손님" 또는 “주인"을 뜻하는 말로써 손님이나 주인 또는 낯선 이방인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환대는 적대적인(hostile) 원수라 할지라도 가족과 같이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환대의 개념은 고대 이스라엘과 같은 유목민의 문화 속에서 상호 호혜적 대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윤리적 개념으로[20] 누군가를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환대하는 행위는 언제가 자신 역시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런 기대감이 타인을 향해 가지고 있던 적대감을 내려놓고, 자신의 방 문을 열 수 있도록 만들게 되었다. 그러므로 환대의 정신은 고대 유목민 세계를 떠받드는 중요한 세계관이 되었다. 김현경에 의하면 이런 환대의 개념은 유목민 사회를 지탱하는 사고 체계에서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되어, 지구의 어떤 특정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보다 우월함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으로 확장되었다.[21] 강남순은 코즈모폴리터니즘이라는 개념을 통해 모든 인간은 우주라는 보다 큰 공간 속에서의 상호 동등한 존재 가치를 갖는 동료로 이해

---

[19] 김선일, “통일의 시대를 위한 환대의 실천신학,” *복음과 실천신학* vol. 50 (February 2019): 9-39.

[20] 정경호, “낯선 손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환대의 밥상,” *기독교사상* vol 657 (September 2013): 80-91.

[21]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5), 190-93.

하였다.[22] 김현경과 강남순의 환대에 대한 개념에 따른다면, 환대란 내에게 속해있지 않는 타자가 존재할 수 있도록 나의 공간을 양보하는 것이며, 그가 나의 공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나를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김현경에 의하면 환대란 내가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타인을 수용하는 것이며, 공동체 속에서 나와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타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타자의 존재와 권리에 대한 이런 인정으로서의 환대의 개념은 근대적 사고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데카르트적 존재론인 '자아 중심적 사고' 속에는 타자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강성률에 의하면 데카르트의 존재론은 이원론에 기반해 있으며, 이원론적 사고는 주체가 아닌 타자에 대한 배타성을 필연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으며[23], 같은 맥락을 따라 박원빈은 데카트르의 자아 중심적 사고는 타자에 대한 자아의 폭력을 용인하는 뿌리가 되었다고 본다. 데카르트의 'Cogito' 곧, 사유하는 나 중심주의는 인간으로 하여금 타자와 세계를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고 제단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더 나아가 전체화의 욕망을 품고 타인에 대한 폭력을 합리화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고 본다.[24] 이런 데카르트적 자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코즈모폴리타니즘적 사고로 타자와 세계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유 구조가 요청되는데, 나는 이것을 레비나스, 데리다 등이 주장한 환대의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22]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의 귀환: 21 세기, 왜 코즈모폴리터니즘인가," *기독교사상* vol. 663 (March 2014): 198-209.

[23] 강성률, *서양철학사 산책* (서울: 평단문화사, 2009), 12-15.

[24] 박원빈, *레비나스와 기독교: 기독교 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대철학* (서울: 북코리아, 2010), 71.

1. 환대에 대한 철학적 사유

(1) 환대에 대한 칸트의 이해

데카르트 철학에 근거해서 형성된 철학에 뿌리를 둔 근대적 사회가 가져온 자아 중심성 사고의 문제점을 인식한 칸트는 자신의 책 *영구 평화론 Zum ewigen Frieden* 에서 이방인 사이의 관계는 위협에서 출발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평화 상태는 자연 상태가 아니다. 자연 상태란 전쟁의 상태이다. 이것은 적대 행위가 계속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중단 없는 전쟁의 위협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칸트는 “평화를 정초”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법적 장치 속에 환대를 위치시키고 있다. 그는 세계 시민법의 근거하여 “세계 공화국의 참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환대는 모든 인류가 가져야 할 ‘권리’이다.” 칸트가 말하는 환대(Hospitalitaet)는 주인의 온정과 친절에 기대는 박애의 문제가 아니라, “각기 다른 시민 결사체에 속하면서, 그 경계 지어진 공동체의 변경에서 조우하는 개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계약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환대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이방인을 맞이하는 주인의 입장에서 한계지어진다. 즉 칸트는 세계 공화국를 위한 기틀로서 환대를 이해하며, 그에 의하면 환대란 주체의 관용이며, 조건적 환대라 볼 수 있다.

(2) 환대에 대한 하버마스의 이해

하버마스는 주체의 관용으로서의 환대의 개념을 의사 소통의 가능성으로 해석을 시도하였다. 하버마스는 칸트의 계몽주의 토대 위에 그의 철학적 사유를 세워갔다. 특별히 그에게 이성은 투명하고 조작되지 않는 의사소통의 유일한 가능성이자, 현대사회가 필연적으로 내포할 수밖에 없는 병폐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이런

가능성이 적극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 '해방'의 공간이 된다. 그리고 이 해방과 '관용'은 연결되어 있다. "해방은 매우 특별한 종류의 자아 경험이다. 왜냐하면 해방 안에서 자아 이해의 과정이 자율성의 증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해방이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으로 "의사 소통"을 꼽았다. 인간은 타인과의 의사 소통을 통해 해방을 경험하며, 이 해방의 경험이 삶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말한다. 여기서 의사 소통의 본질은 참여자 간의 상호 이해인데, 여기에서 "관용"이 형성된다.[25] 왜냐하면 대화 참여자들 간의 상호이해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이 바로 타인에 대한 관용이기 때문이다. 즉 자기만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관용이 가능하도록 주체는 끊임없이 '자기 비판'과 '자기 혁신'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

(3) 환대에 대한 레비나스의 이해

하버마스가 대화를 통한 환대의 터전을 마련했다면, 레비나스는 레비나스는 주체 중심의 서구 철학을 비판하며 타자를 위한 철학을 윤리화하였다. 레비나스는 '타자'와의 윤리적 관계를 통해서만 인간은 주체성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26] 강영안에 따르면 레비나스는 타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구성하기 위해 존재에 대한 이해의 틀을 존재에서 동사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즉, 존재는 운동이라는 동사적 사건이 발생해야 비로서 '알 수 없는' 존재에서 벗어나 '존재의 주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므로 레비나스에 의하면 존재는 운동이라는 탈존재 사건을 통해 존재가 확인된다. 그리고 이런 탈존재 사건으로서의 '누림'을 레비나스는 '향유'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레비나스에 의하면 향유란 행위를 통해 존재를 실현하는 것으로, 존재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의미한다.

---

[25] 김광기, "관용과 환대, 그리고 이방인: 하버마스와 데리다를 중심으로," *현상과인식* vol. 36, no. 4 (December 2012): 141-70.

[26] 강영안, "레비나스: 타자성의 철학," *철학과 현실* vol 25 (2005): 164.

즉,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 숨쉬고, 먹고, 타인과 함께 하는 등 세계 속에서 존재하기 위한 삶의 구체성으로 존재는 이런 향유를 존재 비로소 존재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런 향유를 위해서는 존재는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타자 또는 세계와 분리가 주체의 고유성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런 분리가 타인에 대한 환대의 가능성을 전제한다. 레비나스에 의하면 "타자성은. 우리의 사회적 관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타자와의 관계 한복판에서 이미 비상호적 관계로, 즉 동시성과 정반대의 관계로 모습을 드러낸다. 타인으로서의 타인은 단지 나와 다른 자아가 아니다. 그는 내가 아닌 사람이다. 그가 그인 것은 성격이나, 외모나 그의 심리상태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의 다름 타자성(他者性) 때문이다. 그는 예컨대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이다." 즉, 타자는 주체로 완원할 수 없는 타자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런 분리된 타자성을 인정하고 타자를 환영함으로 주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와 전혀 다르며, 내 인식 밖에 있는 타자는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레비나스는 '얼굴'이라는 단어로 타자와의 만남을 현상학적으로 설명한다. 타자는 얼굴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이때 얼굴은 스스로 우리에게 내보이며 우리에게 호소하듯 표현하기에 레비나스는 '신적인 현현', '계시'라는 표현을 쓴다.[27] 타인의 얼굴이 신의 음성처럼 나에게 호소하는 내용은 전체성으로 동일화시키려는 나의 힘을 거부하고 저항하게 하고 윤리적인 명령을 담는다. 타인의 얼굴은 타인에 대한 동일화 욕구를 가진 내가 부당한 권리를 지니고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며, 죄책감을 느끼게 하여 내가 정의롭게 되기를 요구한다.[28]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타인의 얼굴이 동정심을 유발하여 나를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오히려 그동안 자아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내 인식 체계 안에서만 규정짓고 향유했던

[27] Ibid., 156.
[28] Ibid., 157-58.

것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는 것에서 출발하여 그것이 폭력이자 살생이었음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다.

레비나스는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타인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한다. 첫째, 향유의 주체에서 책임의 주체로 바뀐다.[29] 둘째, 나의 욕구를 희생하며 타인의 고유성을 실현하도록 돕게 된다.[30] 셋째, 나와 타자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타자가 곧 주인이 된다.[31] 타자가 주인이 될 때, 완전히 향유의 주체를 포기할 수 있고, 타자에 대한 진정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타인의 호소가 매우 중요한데, 타인의 얼굴을 보고 호소를 들을수록 책임감이 커지게 된다. 결국 이러한 타인에 대한 책임은 결국 환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임희모는 레비나스의 환대 개념을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주체, 즉 타자를 수용함을 통해 주체에게 일어나는 것으로 대속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한다.[32]

(4) 환대에 대한 데리다의 이해

데리다는 레비나스가 제시한 형이상학적 환대의 개념을 정치적, 법적 상상력을 통해 재해석하였다. 그에 의하면 환대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칸트를 비롯한 계몽주의적 경향에서 있는 조건부 환대와 레비나스의 형이상학적 환대의 개념으로부터 가져온 무조건적 환대로 나누고 있다. 조건부 환대는 "이방인이 주체가 가진 규범과 문화, 언어, 정체 체계 등등을 준수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환대를 제의"하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환대에 대해 데리다는 초대(invitation)의 환대라고 불렀다. 이러한 조건부 환대는 내 영토에서의 순응을 조건으로

---

[29] 문성훈, "타자에 대한 책임, 관용, 환대 그리고 인정: 레비나스, 왈쩌, 데리다, 호네트를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vol. 21 (2011): 391-418.

[30] Ibid., 403.

[31] 강영안, "레비나스: 타자성의 철학," 147

[32] 임희모, "타자와 환대의 선교,"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 56, no. 1 (April 2008): 189-211.

이방인을 나의 공간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무조건적 환대는 "환대 그 자체는 기대되지도 초대되지도 않는 모든 자에게, 절대적으로 낯선 방문자로서 도착한 모든 자에게, 신원을 확인할 수 없고 예견할 수 없는 도착자에게, 사전에 미리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방문(visitation)의 환대"이다. 이것은 주인의 입장에서 초대하는 환대가 아니라, 이방인, 타자의 방문에 열려있는 환대이다. 무엇이 다가오는지, 어떤 이방인이 방문하는지를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일정하게 적용되는 제도적 규칙을 적용하기 어렵다.

데리다가 주장하는 환대의 개념은 이방인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데리다의 환대 철학이 그의 삶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데리다는 스페인-포르투갈계 유태인의 부모에게서 난 알제리 태생의 프랑스 이민자였다. 이민자의 자녀로 태어난 그는 알제리 독립 전쟁(1954-1962)과 제 2 차 세계대전을 거치는 동안,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배제를 경험했다. 또한 반유대주의 정서로 인해 재학 중이던 중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유태인으로서 경험했던 차별과 편견의 경험들은 그로 하여금 타자, 이방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철학적 담론을 만드는데 큰 자원이 되었다.[33] 소포클레스의 『클로노스의 오이디푸스』는 클로노스 숲에 막 도착한 안티고네와 오이디푸스의 대화에서 시작된다. 오랜 방랑 끝에 딸 안티고네의 손에 이끌려 클로노스의 성스러운 숲에 도착한 눈먼 방랑자 오이디푸스는 그들이 도착한 그곳이 어디인지, 환대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오이디푸스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클로노스인에게 "이방인이여!"라고 불러 세운다. 데리다는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방인"이란 존재를 규정하지 않고, 위치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어지는 호칭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런 만남에서 누구도 주체를 포기하고 이방인이 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33] 김종훈, "관용을 넘어 정의로," *다문화교육연구* vol. 9, no. 4 (December 2016): 119-37.

낯선 두 이방인의 만남은 곧 두 주체의 만남이기도 하다. 데리다의 이런 이방인에 대한 이해는 교회 공간 속에서 새신자와 기신자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틀이 될 수 있다. 기신자가 기존 신자이기에 주체라 여겨졌고, 새신자는 새로 들어온 신자이기에 이방인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데리다의 해석을 따르면 기신자와 새신자라는 호칭은 교회라는 제도 속에서 만들어진 호칭일 뿐, 절대적인 호칭이 될 수 없는 상대적 호칭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또한 데리다에 의하면 이방인은 주체의 공동체적 공간에 갑자기 나타난 타자이며, 그 나타남이 주체에게는 낯선 경험, 즉 차이의 경험을 자극하게 된다.[34] 그리고 이방인이 가져온 새로운 해석의 틀은 기존 토박이에게 변화의 자극제가 된다. 이런 경계 경험을 통해 이방인은 "물음을 던지는 존재"가 된다. "물음을 던지는 자"이자 "당연시되던 것을 다른 관점에서 묻는 탐구자"로서의 이방인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데리다는 플라톤의 대화록에서 이방인이 질문자로 등장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런 점에서 이방인은 대화와 사유를 시작하도록 자극하는 자가 된다. 그런 점에서 소크라테스는 이방인의 역할을 했다. 그는 이방인이 아님에도 아테네 법정에서 아테네와 다른 관점 시각을 가지고 질문하는 자로서, 공동체의 관습적 질서를 당연시하지 않는 자로 위치를 세웠다. 이방인은 그런 점에서 질문하는 자로서, 그리고 기존의 문화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런 이방인의 등장은 주체에게는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주체와는 다른 관점에서 그들이 던지는 질문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데리다가 가진 이방인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어거스틴 이후 칼 바르트와 한스 큉 등이

[34] 김애령, "이방인과 환대의 윤리," *철학과현상학연구* vol. 39 (November 2008):175-205.

주장한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Ecclesia semper reformanda"를 떠올리게 한다.[35] 개혁된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교회답지 못한 모습에 대해 질문하는 자로부터 시작된다. 레비나스의 표현을 따르면, 새신자는 개혁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되도록 요구하는 이방인의 얼굴로 찾아오는 하나님일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방인이 가진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이방인은 서구 역사에서 '악마화'되었다. 서구의 사유는 일찍부터 선(the Good)을 자아 정체성 및 통일성의 개념과 같은 것으로 여겨왔으며, 악의 경험을 주체 밖의 이질적 존재와 연결시켰다. 그래서 타자는 주체가 가진 영혼의 순수한 단일성을 오염시키고 파괴시키는 것과 연결시켜 생각되어왔다. 이방인에 대한 이런 사고의 흐름은 911 사태 이후 최고의 정점에 서게 되었다. 911 사태 이후 만들어진 애국법은 이방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며 그들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이런 이방인, 곧 악의 화신으로서의 타자와 어떻게 평화로운 공존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환대의 개념이 만들어졌다.[36]

1. 환대에 대한 신학적 해석

1) 카렌 메인스(Karen Mains)의 환대와 대접

카렌 메인스는 기독교적 환대와 일반적인 대접 사이의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베푸는 자의 태도이다. 환대는 단순히 손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유함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대접은 완벽한 준비로 손님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하는 스스로 속박되는 것으로 출발한다. 둘째, 환대는 사물보다 사람을 우선한다. 자존심을

[35] J. N. Mouthaan, "Besprekingsartikel: Ecclesia semper reformanda: modern of premodern?," *Documentatieblad Nadere Reformatie* vol. 38, no. 1 (2014): 88.

[36] 손영창, "프랑스 문화: 데리다의 무조건적 환대와 타자성," *프랑스문화연구* vol. 24 (May 2012): 97-127.

생각하지 않고 공간이 덜 준비되어도 초대한다. 그러나 대접은 자존심이 먼저이고, 공간이 마련되지 않으면 초대하지 않는다. 셋째, 환대는 베풀면서 이렇게 말한다. “나의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편히 즐기세요”. 대접은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즐기면서 감탄하세요”라고 말한다. 넷째, 환대는 보상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베푸는 것 자체가 기쁨이다. 대접은 칭찬, 답례, 존경과 같은 보상을 기대한다.

2) 엘리자베스 뉴만(Elizabeth Newmans)의 환대

환대에 대한 이러한 철학적 연구에 영감을 받아 엘리자베스 뉴먼(Elizabeth Newman)은 *길들여지지 않은 환대 Untamed Hospitality: Welcoming God and Other Strangers* 라는 책을 통하여 환대에 대한 개념을 신학적인 작업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내고 있다.[37] 그는 교회란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친구와 적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준 공간이라고 주장한다.[38] 현대 사회는 환대의 장소를 잃어버리고, 타인을 환대할 수 있는 공간의 부재로 인해 왜곡된 환대를 낳게 되었다. 그가 주장하는 왜곡된 환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상적인 환대(sentimental hospitality). 차를 함께 마시거나 표면적인 대화, 아늑한 분위기 등으로 묘사될 수 있다. 타자의 생각에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눈 앞에 있는 음식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본질보다는 주변적인 것, 외모, 매너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런 감상적인 환대는 괜찮은 환대로 보이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는 태로 만드는 왜곡된 환대이다.

---

[37] Elizabeth Newman, *Untamed Hospitality: Welcoming God and Other Strangers*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7) 참조.

[38] Ibid., 39.

둘째, 사유화된 환대(a privatized hospility). 예쁘게 단당된 집과, 맛있는 저녁, 그리고 공손한 대화 등으로 상징될 수 있다. 이것은 종종 환대를 개인 가정이나 개인의 일상 영역으로 한정시키는 또 다른 왜곡된 환대를 보여준다.

셋째, 마케팅식 환대(hospility as a mode of marketing). 사유화된 문화 속에서 공공에게 물건을 팔기 위한 환대 산업에 의해 왜곡된 형태로서, 이런 형태의 환대는 값비싸고, 서비스를 위해 돈을 지불하는 물물교환의 형태로 나타난다. 뉴만은 이런 환대를 그루즈 환대(cruise hospility)라고도 지칭했는데, 사람들의 소비에 초점이 모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넷째, 포용으로서의 환대(hospility as inclusivity). 포용으로서의 환대는 다양성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마케팅식 환대의 변형된 환대 형태이다. 이런 환대의 형태는 소비적이고 심미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한다.

다섯째, 기독교적 환대로서의 집 없는 환대(homeless hospility). 뉴만은 네가지 형태의 환대는 장소를 드러내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집 없는 환대는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장애인, 인종과 성별로 인해 차별과 억압을 받는 사람들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장소로서 예배를 주목하고 있다.

뉴먼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구원과 자유가 있음을 믿음으로써 세상의 왜곡된 환대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은 요청한다.[39] 그는 왜곡된 환대의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고향을 잃어버린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을 불러 모으시고,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구원의 길로 우리를

---

[39] Ibid.

인도하신 것처럼 "집을 잃어버린 자들을 맞이하는 환대"를 제시한다. 이것은 "신적인 환대"라고 할 수 있는데 데리다가 말한 무조건적인 환대를 넘어 사회적으로 차별당하고 종교적으로 배제당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만 하는 것이다.

5)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의 십자가 중심의 환대

미로슬라브 볼프는 *배제와 포용*에서 그의 스승이었던 몰트만의 십자가 이해를 수용하여 원수를 사랑하는 환대를 제안하였다[40] 볼프에 의하면 십자가라는 사랑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만 얻고, 그가 걸어갔던 길을 거부하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기만이며, 십자가를 이데올로기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보았다. 볼프에 의하면 십자가의 사건은 존재의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도록 촉구하는 가장 큰 외침이며, 철저한 자기 개방만이 타자와의 환대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볼프의 십자가에 대한 견해를 근거로 데리다의 무조건적 환대를 해석하면 불가능의 가능함이 나타난다. 즉, 데리다는 현실 사회에서는 무조건적 환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무조건적 환대의 가능성이 나타난다. 볼프에 의하면, 무조건적 환대는 배제와 적대가 만연하여 있는 현대 사회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만드는 것에 있다. 십자가의 환대는 인간의 힘에 의한 환대가 아닌 십자가에서 자기 스스로를 내어준 하나님의 무조건적 환대에 근거해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환대 사건은 타자가 자신의 적으로 남을지라도 그런 타자를 자기 안에 수용하려는 그리스도의 태도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이런 십자가의 환대 사건은 그리스도의 환대를

---

[40] Miroslav Volf, *Exclusion and Embrace 배제와 포용*, trans. 박세혁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12), 434.

누릴 뿐만 아니라, 그런 환대를 베푸는 사로 살라는 요청이며, 그런 환대를 실천하는 자로 재창조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거부하지 말라는 외침이다.

6) 크리스틴 폴(Christine D. Pohl)의 기독교적 환대[41]

크리스틴 폴에 의하면 기독교적 환대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42]

첫째, 기독교적 환대는 인간 존엄성의 인식을 기초로 한다.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사람이나 집단이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나그네와 이방인 등)을 구체적인 일상의 현장 즉, 가정, 교회, 공동체, 정치적 영역에서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 존재로 영접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대는 시대의 문화를 거스르는 반문화적인 것이지만, 사회에 작은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다.

둘째, 기독교적 환대는 환대를 받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폴은 환대의 대상을 (1) 전통적 나그네, (2) 현대사회의 상대적 나그네, (3) 미지의 나그네, (4) 위험스러운 나그네, (5) 필사적인 나그네, 그리고 (6)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나그네로 구분한다. 전통적인 나그네란 "지지해 주는 관계망을 갖고 잊지 못한" 또는 "후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상대적 나그네란 사회와 공동체에 깊이 관여하지 못하고, 육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나 무너진 가족 관계 속에 있으면서 사회에서 눈에 띄지 않는 존재들이다. 미지의 나그네란 빈곤하진 않지만 집을 떠나 있으면서 사회에서 눈에 띄지 않는 존재들이다. 미지의 나그네란 빈곤하지 않지만 집을 떠나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41] Christine D. Pohl, *Making Room: Recovering Hospitality as a Christian Tradition 손대접*, trans. 정옥배 (서울: 복 있는 사람, 2002), 41.

[42] 구병옥, "환대(hospitality)를 통한 외국인과의 화해 모색: 복음전도를 향하여," in *한국실천신학회정기학술세미나* (서울, 2016), 257-83.

같은 부류를 말한다. 위험스러운 나그네란 주인에게 경제적 혹은 육체적 위험 등을 초래하는 나그네를 말한다.

셋째, 기독교적 환대를 실천하기 위해선 주변성과 연약함의 인식이 필요하다. 환대에서 좋은 주인이란 자신의 주변성과 연약함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넷째, 온전한 기독교적 환대는 환대가 가지는 한계를 알고, 적절한 경계선을 유지하며, 유혹의 가능성을 인식할 때 가능하다. 환대의 한계는 개인이나 혹은 공동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을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이며, 보통 대부분 제한된 자원에서 시작된다. 한계에도 불구하고 환대를 실천해야 할 이유는 "개인적 환대가 모든 필요를 다 채울 수는 없지만, 약간의 필요는 충족시킬 수" 있으며, "그것은 사람들이 돌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가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환대를 위한 장소 마련이 중요하다. 환대를 위한 장소 마련은 나그네에 대한 사랑과 관대함으로 마음에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섯째, 환대를 삶의 습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인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환대를 실천해야 한다. 환대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닫는 가운데 시작된다."

2. 성경에서의 환대(누가복음 14:12-24 을 중심으로)

1) 식탁 공동체와 관련한 바리새인들의 규율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음식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모세 이후로, 그들은 엄격한 음식 규정을 지키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였으며, 그 규정 밖에 살아가는 존재와 구별하였다. 그리고 그런 정체성 유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배타적 독점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음식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식사의 자리에 누가 함께 할 수 있는지, 함께 해서는 안되는지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쿰란 문서에 따르면 이방인, 여성, 또는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공동 식사를 금지했다. 또한 인종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따라 공동 식사가 금지되기도 했다. 이런 식사 규정은 정결 예식의 범주 안에서 이해되었다. 정결 예식의 범주 안에 있는 식사 규정은 하나님의 백성의 경계를 설정하는 상징적 질서를 보여주었다.

식사와 관련하여 세 번째 특징은 사회 내 호혜(reciprocity) 관계였다. 식사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받은 만큼 보답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질서였다. 이런 호혜 관계는 크게 세 가지고 나타난다. 보편적(generalized), 균형적(balanced), 부정적(negative) 호계가 그것들이다. 첫째, 보편적 호혜는 준 것에 대해 되돌려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것이다. 수폐자인 타자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다. 둘째, 균형적 호혜는 좋은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려는 의도에서 상호 교류하는 것이다. 상호간에 일정한 이익이 됨을 전제한다. 주는 만큼 돌려받는 그런 관계이다. 셋째, 부정적 호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당시의 식당 공동체 문화는 돌려받을 수 있는 특정한 경제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이 함께 먹을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

이런 세 가지 율법에 의해, 그들은 하나님과의 배타적 관계를 유지하며, 음식 정결과 관련하여 이방인, 사마리아인, 장애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지 않는 초월적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하였으며, 특정한 경제 계층과만 식탁을 나누는 경제적 분리의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은 식사 및 식탁 교제에 관한 이런 세 가지 기본 지표를 모두 전복시켜버렸다. 예수로부터 시작된 환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존의 형식적으로 고착된 율법 체계를 재해석하도록 만들었다.

2) 예수가 베푼 '환대의 식탁'

예수의 권고는 되갚음과 신분적 과시를 요구하는 손님들로 가득 찬 만찬을 열고 있는 사람에게 들려진다. 그는 일반적인 바리새인들이 추구한 사회적/경제적 원리를 따라 식탁의 자리를 만들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12 절부터 14 절에 이르는 예수의 조언은 균형적 호혜가 아닌 보편적 호혜를 가르치고 있다. 예수의 이런 가르침을 주인이 따르게 될 경우, 그는 몇 가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첫째, 경제적 차원이다. 주인은 돌려받을 희망이 없는 재정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둘째, 종교/문화적 차원이다. 가난한 자들 및 사회적으로 배제된 자들과 연합함으로써, 주인은 종교적으로 불결하게 되고 문화적으로는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 말씀은 주인에게 사리새파의 종교적 경계와 부자와 가난 자 사이에 놓인 사회적/경제적 경계의 넘어섬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데리다는 환대를 초대적 환대와 방문적 환대로 나누고, 환대의 방법으로 방문적 환대를 제안했다. 본문에 나타난 예수의 조언은 바리새파가 가지고 있었던 초대적 환대의 경계를 넘어서서, 방문적 환대로 옮겨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 결국 삶의 안정성은 주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 그 타자를 넘어서는 궁극적 존재로서의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 등장한 그룹, "밭을 사고, 소 다섯 겨리를 사고, 장가 든" 사람들은 단순한 초대를 거부한 것을 넘어서 주인과의 관계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잔치에 대한 공지가 주어졌을 것이고, 초대장은 이미 잔치 전에 도달했을 것인데, 주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보다 약속을 어기는 것이 더 경제적/사회적으로 좋을 것이라는 기대가 내포되어 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그룹은 초청의 공간이 “시내의 거리와 골목”, “길과 산울타리”로 나타난다. 시내의 거리와 골목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길과 산울타리는 도시 밖의 공간으로, 여행객이거나 사회/종교적 경계 내부에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일 가능성이 높다.

주인은 첫 번째 그룹의 초청이 거부되자, 두 번째 그룹을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있다. 이 주인은 예수가 12~14 절에서 요청했던 보편적 호혜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런 가르침을 듣는 청중들에게 경제적/사회적 신분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고 보편적 호혜를 실행하도록, 즉 전향적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윤리의 대상은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사회 주류 계층에서 사회 소외 계층으로 옮겨졌음을 보여준다. 데리다의 표현을 따르면 초청의 환대가 아닌, 방문의 환대로의 전환이 예수 가르침의 핵심이 된다. 이런 의식의 전환이 예수의 환대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요구였다.

위 본문을 근거로 성경 속에 나타난 환대를 정리하면, 환대란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환대는 머물 곳과 먹을 것이 없는 손님의 요청에 대한 집주인의 책임을 가르킨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환대의 어원적 의미는 라틴어로는 ‘주인’ 혹은 '손님‘을 뜻하는 ‘hospes’에서 왔으며 그리스 어원을 살펴보면 ‘philoxenia’인데 이 단어는 “낯선 자와 손님에 대한 호의적’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또한 ‘사랑’이란 단어와 ‘낯선 자(stranger)'의 합성인 ’낯선 자에 대한 사랑‘으로 번역된다. 따라서 환대는 가족이나 친적 뿐만 아니라 낯선 이방인을 비롯하여 심지어는 적의를 가진 원수 같은 사람들도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쇼(Shaw)는 환대라는 개념을 하나님과의 화해(reconciliation)와 연결시켜 설명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환대의 모습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삶 역시 환대로 이해될 수 있다.[43]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환대는 단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단계를 넘어,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concern for justice)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방인, 나그네,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병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환대를 강조했다. 또한 누가복음 14 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예수 역시 종교, 인종, 성별, 빈부, 신체적 능력 등에 대한 당시 사회, 문화적 차별을 초월하는 환대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증표가 되는 환대의 모범을 보이시고 가르쳤다.

3. 현대 교회와 환대

이와 같이 고대로부터 기독교 역사의 전통 속에 도덕규범의 핵심으로 자리했던 환대는 낯선 자에게 음식과 거주할 곳 등의 보호를 제공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치에 대한 인정과 보편적 인간애로서의 환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폴(Pohl)은 환대는 우리가 타인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로 인식할 때 본래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44] 이때 환대는 인정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때의 인정은 환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종종 무시되는 그들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진정한 환대는 계층, 인종, 자격 등에 대한 장벽을 넘어서는 공동체적 기반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회의 환대는 데리다가 말한 무조건적 환대조차도 추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타자를 어디까지 포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라고 예수에게 질문했던 어떤

43 Perry W. H. Shaw, “A welcome Guest: Ministerial Training as an Act of Hospitality,” *Christian Education Journal Series* vol. 8, no. 1 (Spring 2011): 9-14.

44 Pohl, *Making Room: Recovering Hospitality as a Christian Tradition 손대접,* 41.

율법교사의 모습을 그대로 재연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가르친 것처럼 제한된 이웃 개념이 아닌 "누가 그 이웃이 되겠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자기 중심적인 입장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상황으로 옮겨 그로부터 '이웃'의 개념을 정의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신적인 환대란 자아와 타자, 주체와 객체의 구분을 없애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주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대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강남순은 교회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딜레마를 교회가 예언자적 소명으로 이해함으로써 현실 안에서 무조건적인 환대를 실천해 나가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45]

그렇다면 우리가 신적인 환대를 추구하기 위해서 환대 신학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을 제시하는가? 강남순은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에서 코즈모폴리턴 환대 신학에 대해 제시하는데, 첫째 환대의 신학은 한 인간을 사회문화적 정체성, 정치적 위치나 역량 등과 상관없이 신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고귀한 인간으로, 그리고 우주에 속한 동료시민으로 보는 연민적 시선으로부터 출발한다. 둘째, 환대의 신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신분이나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얼굴을 지닌 개별적 존재로 보는 개별성의 윤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셋째, 환대의 신학이란 개인적 구제나 관대함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담론이고 실천이다.[46]

서로 다른 수많은 타자들이 공존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름에 대한 편견이나 낙인찍기가 아니라 각각의 개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모두가 이 땅에서 나그네된 백성임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되심을 인정하면서 서로가 교회 안에서 한

---

[45]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21 세기 영구적 평화를 찾아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198-99.

[46] Ibid., 198.

몸임을 깨닫게 되는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차별과 소외로부터 벗어나려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환대예배와 교육이 필요하다.

B. 포용(가까이하기)과 배제(거리두기)를 통한 환대의 나눔

나는 본 연구를 통해 O 교회의 시니어 아카데미에 참석하는 실버세대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소외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실버세대라는 코호트적 동질성과 기독교 신앙이라는 신앙적 토대, 그리고 O 교회라는 집단적 공동체 의식으로 인해 공동체적 동질 의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사역하면서 발견하게 된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새신자와 기신자는 직업과 학력 등으로 서로를 서로를 차별하며 소외시키고 있었다. 학력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열등감을, 그리고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은 사람은 상대적 우월감을 은연중에 표현함으로 열등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다. 학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그리고 경제적 차이 역시 이런 열등감과 박탈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관계적, 심리적 기제로 작동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시니어 아카데미라는 하나의 공동체에 모두 속해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신의 기준을 근거로 서로를 대우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모두가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시니어 아카데미 공동체 속에서 발생하는 이런 모습은 레비나스에 의하면 자아 중심적 사고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자아 중심적 사고는 근대 사회의 문을 연 데카르크의 'Cogito, ergo sum' 곧 생각하는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로부터 파생된 사고 형식으로, 레비나스에 의하면 사유의 주체는 사유의 대상의 되는 모든 존재를 사물로 격하시켜 버렸다는 것이다. 나와 타자는 주체와 주체가 아닌, 주체와 능동적 사고를 하는 주체에 의해 피동적으로 파악된 수동적 존재 곧 사물로 격하된다. 결국 데카르트적 사고 양식은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게 만들고, 주체만 남게 만든다고 보았다.[47] 나는 레비나스가 데카르트를 비판했던 관점이 시니어 아카데미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모든 공동체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상대적 우월함이 존재한다. 어떤 사람은 학력이, 다른 사람은 경제적으로, 또 다른 사람은 사회적 지위 등으로, 그것도 아니라면 교회 직분으로라도 상대적 우위성을 점유할 수 있다. 이런 상대적 우월성으로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에 대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 상대방을 간주하고, 그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 모두가 소외를 느끼고,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게 된다.

성경 역시 이런 주체 중심의 사고를 부정한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사랑 안에서 평등한 상호 관계를 유지한다. 성부가 우위를 차지하여 성자 또는 성령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48] 시니어 아카데미 공동체의 구성원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존재 양태와 다른 방식으로 사유하고 공동체 속에서 활동한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닐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나는 경험하였다.

나는 공동체 속에서 발견하는 환대하지 못하며 서로 소외시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포용과 배제를 위해 멘토링(mentoring)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기신자와 새신자가 멘토와 멘티가 되어 공동체성을 경험하도록 구조화하였다. 이런 환대를 통한 소외 문제를 극복하려 한 이유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섬겨야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우리와 같이 되어 십자가라는 자기 부정의 사건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기신자는 멘토로서 멘티인

[47] 강영안, "레비나스: 타자성의 철학," 147-66.

[48] 김유준, "아우구스티누스와 조나단 에드워즈의 삼위일체론 비교 연구," *韓國敎會史學會誌* vol. 37 (2014): 207-39, 210.

새가족을 돕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49] 레티 러셀의 표현과 같이 우리가 과거에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께 낯선 존재, 하나님께 수용될 수 없고, 인정받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 환대받는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다.[50] 구체적으로는 기신자와 새신자가 한달동안 멘토와 멘티라는 그룹 속에서 교제하며 삶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일주일에 두번 전화하고 안부를 물으며, 시니어아카데미에 와서는 한 주간의 살아왔던 삶을 나누고 큐티 시간을 가짐으로 수용과 포용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었다. 또한 스텝을 제외한 기신자들은 한 조에 두 명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친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분리하여 조별 모임을 갖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끼리 휴식 시간이나 조별 모임 때 서로 이야기하여 친밀함을 과시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프로그램의 결과 기존 신자들과 새가족 사이의 어색함이 완화되었으며, 기존 신자들끼리만 만나는 폐쇄적인 모임들이 감소하였으며, 새신자와 기존 신자가 함께 만나는 모임이 활성화되었다. 오랫동안 시니어 아카데미에 참석한 사람은 이런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과 같은 참여 경험을 진술하였다. "과거에는 아는 사람들과만 만났고, 그들에게만 나의 집 문을 열어주었지만, 이제는 모르는 분들과 교제를 나누고 서로 알아가게 되었었다. 이로 인해 공동체가 이전보다 따뜻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변화된 공동체의 모습은 강남순에 의하면 편안함의 해체를 통한 주인과 손님의 경계선 허물기에 해당한다.[51] 기신자는 새신자를 멘토링 하기 위해 자신을 개방하게 되며, 자신을 개방하면서 기존 신자들끼리의 만남이라는

---

[49] 김은정, "환대적 학습환경과 기독교교육," *인문학논총* vol. 33 (2013): 231-48.

[50] Russell, Letty M., *Just hospitality: God's welcome in a world of difference 공정한 환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환영,* trans. 여금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157.

[51]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기독교사상* vol. 669 (September 2014): 202-19.

편안함이 포기하였다. 이런 포기는 결국 기신자 그룹과 새신자라는 그룹이 해체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포기된 기존 신자의 편안함 때문에 기존 신자와 새신자 사이에 경계가 허물어지게 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C. 호칭의 변화를 통한 환대의 관계

기존의 시니어 아카데미에서는 교회의 직분을 호칭으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새신자와 같이 교회의 공식 직분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 소외감을 경험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직분의 유무에 따라 차별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느꼈다.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직분명 즉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등은 교회의 직무를 위한 기능적 호칭이지만, 새가족이 이런 직분에 대해 느끼는 것은 기능상의 호칭이라기보다는 위계를 상징하는 호칭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직분에 따라 영향력의 정도와 파급 범위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직분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보니,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직분을 얻어야 공동체 속에서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연구 참여자가 의외로 많이 있었다.

O 교회 시니어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 과정에서 드러난 모습은 레비나스에 의하면 자아 동일성의 사고 패턴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레비나스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이 소속되어 살고 있는 공간 속에서 타인을 인식할 때 자신의 인식 체계 속으로 끌어들여 사유함으로 자신과 동일시한다.[52] 레비나스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이 존재하는 환경 속에서 그것을 향유하기 위해 그것과 분리시키지만 동시에 그것을 지배하기 위해 전체화의 욕망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타자와 세계를 이해하고 경험하는데 있어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자신의 방식으로 이해한 세계를, 실제 세계와

[52] 박원빈, *레비나스와 기독교: 기독교 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대철학*, 71.

동일하다고 간주함으로, 세계가 가진 다양성은 소멸된다. 이런 소멸은 결국 세계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타자를 획일화하였다는 점에서 폭력이 된다. 주체에 의해 획일화됨으로 인해 타자의 고유성과 존재의 아름다움은 소멸되고, 자아 중심적 사고의 결과와 같이 타자를 사물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자아동일적 사고로부터 벗어나 타자를 주체와 같이 또는 주체 이상의 존재로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레비나스는 '얼굴'이라고 표현한다. 타인의 얼굴은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되어 나에게 호소한다. 주체가 가지고 있는 전체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것이며, 동시에 그런 전체성으로부터 벗어나라는 윤리적 외침인 것이다. 타인의 얼굴을 통해 주체는 비로소 타인에 대해 동일화라는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폭력은 부당한 폭력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정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든다. 이런 인식은 결국 정의롭게 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진다.[53] 주체가 자기 중심적 세계 속에서 타자를 동일화함으로 지배했던 것이 타인에게는 폭력이었음을 알게 되어야 그런 폭력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알 수 없는 존재이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묻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였다. 이름이라는 호칭을 물었지만, 호칭이 아닌 존재 양태를 말한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 이전에 존재한 것이 없다는 점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결국 하나님이라는 존재 속에는 무한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런 무한성은 인간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이상을 의미한다. 레비나스는 이런 무한성의 개념을 나그네와 고아 그리고 과부에 적용한다.[54] 인간은 타자에 의해 완전히 포섭될 수 없는 부분이 항상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호칭이라는 상징적 개념을 활용하여 타자에 대해 완전히

---

[53] 강영안, "레비나스: 타자성의 철학," 157-58.
[54] 박원빈, *레비나스와 기독교: 기독교 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대철학*, 63.

포섭했다고 간주하며 살아간다. 레비나스의 ‘얼굴’ 속에 담긴 무한성의 개념은 인간이 가진 인식의 한계를 명시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인식의 한계를 숨기기 위한 자기 암시(이름을 알면 상대를 안다는 주체의 착각)를 깨닫게 하고 벗어나게 한다.

레비나스의 무한성과 얼굴이라는 개념으로 O 교회의 시니어 아카데미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직분을 가진 사람은 직분이 없거나 자신보다 낮은 직분을 가진 사람에 대해 직분으로 호칭함을 통해 자기가 가진 직분이라는 계층적 체계 속에서 전체화라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지배하였다. 이런 현상을 증명할 수 있는 표현은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의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직분을 가져야겠다’는 표현의 이면에는 ‘직분이 없어 (타인에게) 무시를 당했다’ 또는 ‘직분이 없으니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내가) 느꼈다.’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타인에게 직접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든지, 아니면 타인이 나를 무시하는 것으로 내가 느꼈든지 모두가 타자적 경험이다. 왜냐하면 주체의 체계 속에서 포섭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교회의 공식 직분명을 사용하는 대신, “씨”,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바꾸기로 했다. 호칭을 바꾸는 과정에서 변화를 거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교회 안에서는 지금까지 직분으로 호칭을 불렀는데,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하니까 참 힘드네요.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전 그냥 이름 대신 직분을 부르렵니다. 여기는 교회 공동체이지 친목을 위한 모임이나 계가 아니잖아요?” 변화를 거부하는 목소리 속에는 기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 대한 거부 의사로 나는 이해가 되었다. 그렇지만 호칭의 변화를 수용하는 그룹이 대부분이었기에 호칭를 변화시키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되어 호칭 바꾸기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었다.

레비나스의 방식으로 본 호칭 바꾸기 프로그램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종전의 호칭 속에 담김 힘을 사용하였던 직분 그룹은 그런 호칭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해 자신이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호칭을 통해 폭력을 사용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누구누구 장로로서 말하는 것과 누구누구 씨로서 말하는 것은 청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무게가 다르기 때문이다. 역지사지라는 말과 같이 직분이 없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 것이다. 모두가 직분 없이 씨, 또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게 되자, 서로를 알아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직분으로 호명하였을 때에는 직분 뒤에로 숨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커튼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개방할 수밖에 없었다. 즉 레비나스의 표현대로 타자의 무한성이 회복된 것이다. 직분이 함축했던 질문할 수 없었고, 당연히 알고 있을것으로 기대된 많은 것들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타자가 주체에 의해 완전히 포섭될 수 없는 무한한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 가운데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실버세대 아카데미에서 늘 직분으로 불렸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니 나를 다시 찾은 것 같아요 참 좋고 설레입니다.”, “나를 찾았다.”는 표현 속에는 타자에 의해 만들어진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나’라는 존재로 공동체의 주체적 일원이 되었다는 표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름을 부르면서 무한성의 영역인 고향, 살아온 삶, 그가 가진 내가 다 알 수 없었던 무수한 세계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나타난 이런 변화의 물결을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의 표현을 빌리자면 ‘호모 사케르의 소멸’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55] 누구도 공동체의 돌봄의

---

[55] 진주영, “호모 사케르의 윤리: 이창래 (Chang-rae Lee)의 [제스처 라이프 A Gesture Life] 와 [생존자 The Surrendered]에 나타난 여성캐릭터 연구,” in *전남대학교 글러벌디아스포라 연구소 국내학술회의* (전라남도, 2013), 33.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누구도 돌봄의 울타리 속에서 타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호칭 속에 담겨 있는 폭력성에 대한 인식은 폭력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의 감수성을 높여주었고, 결과적으로 상호배려가 향상되었다. 존 쾨닉의 표현을 빌려 표현하면, 초대 교회의 환대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다. 쾨닉에 의하면 예수는 가난하고 홀대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환대하였으며, 예수의 이런 환대 행위는 초대 교회의 중요한 전통이 되었다.[56]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표현을 빌리면, O 교회의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일어난 변화는 기호의 존재 방식에서 언어의 존재 방식으로 변화된 것이라 표현할 수 있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기호와 언어는 본질에서 다르다. 기호가 기능으로서 더 이상 작동되지 못할 때, 기호가 의식의 대상이 되면서 언어로 변화된다. 이때 비로소 존재는 언어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57] 하이데거에 따르면 직분이라는 기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기호 속에 담겨 있는 의식의 대상인 인간 존재가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난 실제 인간 존재와의 만남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D. 차별과 소외를 넘는 환대의 공간 – 밥상공동체

나는 O 교회의 시니어 아카데미에 존재하는 이런 소외와 차별 그리고 여러가지 갈등 요인들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식탁 공동체를 제안하였다. 지금까지는 1 부 예배와 2 부 강의 그리고 짧은 친교 시간을 가진 뒤 점심 식사 전에 모임을 마쳤다. 자연스럽게 모임을 마치면 사회적, 경제적 계층별 모임, 교회 직분별 모임 등 끼리끼리 모임이 이어졌으며 자연스럽게 새가족들은 이런 모임에 참여가 어려워 자연스럽게 소외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조적 차원에서 환대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이다.

---

[56] Koenig, *환대의 신학*, 61–62.

[57] 전동열, "하이데거의 존재론에서 기호의 존재 방식과 '존재의 집'으로서의 언어," *獨逸文學* vol. 61, no. 1 (2020): 91–115.

한국 문화는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는 문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왔었다. 특별히 한국에서의 식탁 문화는 식탁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집단적 기억이 형성되고, 재생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 초대 교회 예수의 부활 사건 이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성만찬이라는 식탁 모임을 재연함으로 예수를 기억하였다. 이런 식탁 모임은 예수에 대한 기억을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존재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상징 체계였던 것이다.[58] 또한 누가복음에 기록된 식탁 모임을 경계선의 재구성 사건으로 규정한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예수의 식탁 모임에 참여함으로 사회적/경제적인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보편적 호혜를 실천하도록 격려받았다. 이런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초대 교회 역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경계 허물기에 주력하였다.[59]

성서적 전통뿐만 아니라, 환대의 식탁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식탁으로 초대받았음에 대한 기쁨 그리고 함께 식사한다는 동등 의식 등에 기반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어, 공동체 속에서 자기 개방성이 향상된다고 보았다.[60] 레티 러셀에 의하면 이렇게 자기 개방성이 향상된 공동체는 다른 삶의 배경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타자를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환대를 실천하는 토양이 될 수 있다.[61]

나는 이러한 성서적, 신학적 배경 속에서 식탁 모임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O 교회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식탁 모임을 실시하였다. 식탁 모임과 함께 공동체의 역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일 축하 모임 및 식사 후 갖게 될 소모임의 주제 등도

---

58 박재필, “기억의 매개로서 식탁에 대한 연구: 제의적(祭儀的) 성만찬을 일상의 성사(聖事)로 이루기 위한 목회적 방안,” *장신논단* vol. 52, no. 3 (2020): 195-219.

59 반재광, “누가의 ‘환대의 식탁’ 연구,” *신약논단* vol. 24, no. 3 (2017): 553-85.

60 정경호, “환대의 밥상, 환대의 신학삶,” *신학과 목회* vol. 34 (2010): 177-209.

61 Russell, *공정한 환대*, 25.

공유하였다. 그 결과 식탁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참석률이 증가하였으며, 다양한 개인적 사유로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 활성화되었고, 결국 식탁 모임은 단순한 점심 식사 모임을 넘어서 축제의 분위기까지 갖게 되었다. 새롭게 시도한 식탁 모임이 기존의 식탁 모임과 달라진 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시니어 아카데미 밥상 공동체에서는 식사를 할 때 축복할 소식을 미리 신청을 받았다. 예를 들면, "손주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우리 아들이 직장에서 승진했어요.", "제가 일대양육을 수료했어요." 등 자신이 축복받아야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한 주전 스텝에게 알려주어, 식사 모임 때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식사 모임 때 조별로 담소를 나눌 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들과 잘 소통하고 손주들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기 위해 지금 당장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등 식사의 자리가 서먹서먹한 자리가 되지 않도록 대화의 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 3부 순서에 나눔의 내용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식사 모임에 추가된 이런 세부 프로그램은 식탁의 역동을 증가시킴으로, 격려와 축복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이런 환대의 식탁 모임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 속에는 이런 모임 속에서 경험한 환대의 따뜻함이 그대로 녹아 있다. "밥을 먹고 식사후에도 프로그램이 진행되니까 너무너무 신나고 행복합니다. 식사시간이 단순히 밥먹는 시간이 아니라 축하해야 할 사람들을 축복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레비나스의 표현을 인용하면 환대의 식탁 모임은 자신을 개방하며 문을 여는 행위가 된다. 또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기 위한 '자기애적 환대'나 직분이나 사회적 지위 등과 같은 공유된 유대감을 기반으로 한 '상호적 환대'의 차원을 넘어서서 무조건적 환대를 경험하는

의미있는 경험이 되었다.[62] 러셀에 의하면 성경에 나타난 환대는 크게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첫째, 주변화된 사람들의 존재가 회복되고 그들의 권리가 인정된다. 둘째 상호적 환영이 이루어진다. 셋째 진정한 공동체가 형성된다. 넷째 신의 현현이 나타난다.[63] O 교회 시니어 아카데미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는 새가족이었지만 자신의 존재가 기존 신자들에게 인정받게 됨을, 그리고 환대받고 환대하는 상호적 관계를,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초대 교회와 같은 공동체 경험을 하게 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신앙적 요소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

E. 영성과 재미를 추구하는 공동체

나는 목회자로서 O 교회 시니어 아카데미에 출석하는 기신자와 새신자 사이에서 영성을 추구하는 그룹과 재미를 추구하는 그룹을 신앙의 위계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즉 영성을 추구하는 그룹이 재미를 추구하는 그룹 보다 신앙적으로 더 성숙한 그룹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환대의 개념을 교회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 학습하는 과정에서 영성과 재미을 이분법적으로 나눈 나의 생각에 변화가 생겨났다. 영성과 재미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나뉘어지기 어려운 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성경은 '재미'를 뜻하는 즐거움과 관련하여 많은 말씀이 존재한다.[64] 신명기에 기록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65]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들여오면서 여호와를

---

[62] 문성훈, "타자에 대한 책임, 관용, 환대 그리고 인정," 391–418.
[63] Russell, *공정한 환대*, 130~33.
[64] 로마서 12 장 15 절; 이사야 9 장 3 절; 느헤미야 12 장 43 절; 시편 32 편 11 절 참고.
[65] 신명기 16 장 15 절.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추었다.'[66] 그는 자신만 즐겁게 뛰놀았던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런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 그리고 건포도를 나누어주며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였다.[67] 자유롭고 즐거운 놀이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존재 양태인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즐겁게 놀 수 있는 피조물로 창조하였지만, 현대 교회에서 놀이, 재미 그리고 즐거움 등은 경건하지 못한 행동으로 이해되곤 한다. 교회의 이런 경직된 경건성의 근원에 대해 몰트만은 청교도주의에 뿌리내리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몰트만에 의하면[68] 종교개혁이 세속적 경제활동에 대한 신학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 이익 추구를 통한 부의 축적이라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청교도주의는 이러한 경제 활동 행위인 부지런하고 근면한 노동 활동을 소명(calling)이라는 관점에서 수용함으로 놀이, 즐거움, 오락, 축제 등이 갖는 가치를 소멸시켰다. 몰트만에 의하면 청교도주의는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즐거움을 얻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함으로 놀이가 아닌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소명을 성취할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런 청교도의 노동을 통한 소명 성취에 대한 강조는 종교개혁을 통해 정립하였던 믿음을 통한 구원에서 중세교회가 강조한 행위를 통한 구원으로의 회귀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였다.[69] 나는 현대 한국 교회가 노동과 놀이에 대해 가진 청교주의가 추구한 노동관, 그리고 그런 노동관에 뿌리내리고 발전한 자본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O 교회 시니어 아카데미에 출석하는 기신자와 새신자 사이에 영성을 추구하는

66 사무엘하 6 장 16 절.
67 사무엘하 6 장 18-19 절.
68 Jürgen Moltmann, *Theology of Play* (New York, NY: Harper & Row Publishers, 1972). 5
69 Ibid., 10-11.

그룹과 재미를 추구하는 그룹 사이에서, 재미를 추구하는 집단은 신앙적으로 미숙한 그룹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사고 속에 이런 청교도주의적 사고가 자리잡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경건하고 종교적인 활동을 추구하는 그룹이 재미를 추구하는 그룹보다 신앙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는 이런 사고는 레비나스의 표현을 따르면 폭력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나는 시니어 아카데미에 환대의 개념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사역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영성과 재미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게 되었다. 몰트만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놀이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being there for others)이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being there with others)으로서 놀이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타자와 진정한 연대와 더 나아가 환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70] 그가 히틀러의 폭력에 항거하였던 본회퍼(Dietrich Bonhoeffer)의 삶에 주목하면서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위해 함께 울지못한다면 그레고리안 성가를 부를 자격이 없다는 말을 상기하였던 것처럼 타인과의 진정한 연대는 놀이를 통해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가 되는 것이며, 동시에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8 세기 다마스커스(Damascus)의 요한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페리코레시스(περιχώρησις, perichoresis)에 대해 삼위 하나님이 상호내주하는 코레시스(choresis) 곧 거룩한 춤으로 캐서린 라쿠그나(Catherine LaCugna)[71]는 이해한다. 그녀의 이해를 따라 몰트만 역시 기독교적 놀이는 나와 너 사이의 종속 또는 계층적 관계의 표상인 주인과 종, 기신자와 새신자 등이 존재하지 않고 자유와 즐거움 그리고 상상력이 있는 인격적 관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

[70] Ibid., 43.

[71] Catherine M. LaCugna, *God for Us: The Trinity and Christian Life* (New York, NY: HarperOne, 1991), 272.

페리코레시스를 지향하는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놀이처럼 서로를 환대하며 즐거움 속에 공존할 수 있게 된다.

호이징아(Johan Huizinga)는 '호모 루덴스(homo ludens)' 즉 놀이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이해를 제기하였다. 이후 신학계에서는 휴고 라너(Hugo Rahner)와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에 의해 '놀이하는 하나님(Deus ludens)'이 강조되었다.[72] 몰트만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놀이하는 자리가 되는데, 그에 의하면 인간의 놀이 이전에 하나님의 놀이 곧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통해 놀이를 하시며 그분 자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무로부터 창조하였다. 몰트만에 의하면 창조는 곧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한 놀이 행위였다.[73] 창조주 하나님이 즐거움을 위한 놀이 행위를 추구하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역시 놀이의 인간(homo ludens)가 되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야 한다고 몰트만은 주장한다. 또한 심리학계에서는 도날드 위니캇(Donald Winnicott)에 의해 강조되었다. 피터 버거(Peter Berger)는 인간은 놀이를 통해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초월적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74] 하비 콕스(Harvey Cox)는 종교적 성향을 가진 인간은 자신의 존재보다 더 큰 우주와 역사의 관점에서 자신의 존재를 파악하는데, 특별히 종교인은 종교적 제의인 축제를 통해 과거의 전통과 우주적 개방성을 경험한다고 보았다.[75] 제롬 베리만(Jerome W. Berryman)[76]은 '성스러운 놀이'(Godly Play)라는 개념을 통해 놀이가

---

[72] 윤영훈, "놀이로 세우는 공동체—문화시대 신학과 목회를 위한 놀이의 재발견," *신학과 선교* vol. 54 (2018): 193-232.

[73] Moltmann, *Theology of Play*, 18-19.

[74] 임경수, *인간발달이해와 기독교 상담* (서울: 학지사, 2004), 146.

[75] Harvey Cox, *바보제*, trans. 김천배 (서울: 현대사상사, 1973), 28-31.

[76] Jerome W. Berryman, *Teaching Godly Play: How to Mentor the Spiritual Development of Children* (Denver: Morehouse Education Resources, 2009), 24-28.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해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였다.

손호현은 몰트만의 놀이하는 하나님의 개념에 대해 하나님의 창조는 형이상학적인 필연으로서의 창조가 아닌, 자유와 기쁨으로서의 창조이며, 하나님은 선한 행위를 해야 하는 당위적 차원을 가진 윤리적 하나님이기 전에 선한 행위를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놀이하는 하나님'이라고 이해한다.[77] 김기철에 의하면 놀이하는 하나님은 '창조된 피조물(created creature)'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피조물(creating creature)'을 창조하였다고 해석한다.[78] 즉 창조적인 하나님은 창조되어 더 이상 새로운 재미와 즐거움이 없는 따분한 피조물이 아니라, 자유속에서 무엇이든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재미있는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유쾌한 피조물을 창조했다는 의미이다. 이런 즐겁고 재미있게 놀이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위니컷는 아이가 중간 영역에서 창조적인 놀이를 통해 창조성이 만들어지며, 이런 창조성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예술과 문화를 창조하며 신앙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보았다. 강진아와 정연득은 목회상담적 관점에서 치료가 가능한 공간이 놀이가 가능한 공간이며, 놀이할 수 있는 능력의 회복이 치료의 목표가 된다고 보았다.[79] 손호현은 놀이 신학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업적과 성취 지향적인 현대 문화 속에서 한 개인이 가지는 가치의 기준으로 유용성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제적 구조를 지적하며,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진 가치와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놀이가 회복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80]

---

[77] 손호현, "한 멋진 삶의 풍경화: 유동식의 예술신학연구," *한국문화신학회 논문집* vol. 10 (2007): 94-129.

[78] 김기철, "놀이로 구현되는 하나님 형상," *신학사상* vol. 160 (March 2013): 75-107.

[79] 강진아 & 정연득, "해석학적 놀이로서의 목회상담," *신학사상* vol. 183 (2018): 237-58.

[80] 손호현, "몰트만의 놀이의 신학," *신학사상* vol. 137 (2007): 129-59.

이러한 신학적/심리학적 해석에 따르면, 놀이와 그 속에 포함된 즐거움 또는 재미는 영성과 상반되는 개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는 이 프로젝트의 결과를 질적연구 방법론을 통해 분석하면서 영성과 재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게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의 환대는 영성과 재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며, 영성을 추구하는 것과 재미를 추구하는 것을 구분하지 말고, 그 둘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레비나스와 몰트만, 그리고 데리다의 이론을 차용하여 환대의 식탁을 놀이와 영성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제 3 의 공간인 중간 영역으로 작용하도록 만들었다. 레비나스의 이론을 따라 이런 환대의 식탁에서는 위계적이고 계층적 관점에서 상대 그룹을 바라보는 주체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도록 하였다. 또한 데리다의 이방인에 대한 정의 곧 "물음을 던지자는 자"이며 "당연시되었던 것을 다른 관점에서 묻는 탐구자"라는 관점을 수용하여[81] 두 개의 분리된 그룹이 환대의 식탁에서 그동안 주체 중심주의적으로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대해 질문하고 새로움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몰트만의 놀이 신학이 추구하는 자유로운 놀이로서의 창조의 개념이라 생각한다.

나는 O 교회 시니어 아카데미에 존재한 이런 소외와 차별 등이 해소되고 온전한 공동체로 변화 성장하도록 만들기 위해 레비나스와 데리다의 이론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보완하였다.

첫째, 새신자와 기신자 모두가 시니어 아카데미라는 공동체 속에서 자신만의 관점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기신자는 새신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새신자는 예배, 신앙 생활 및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나는

---

[81] 김애령, "이방인과 환대의 윤리," 175-205.

이런 현상을 레비나스가 데카르트를 비판하였던 자아 중심적 사고의 양태로 이해하였다.[82] 모든 공동체 속에 존재하는 사람은 자신의 관점에서 타인보다 상대적 우월함이 존재하기에 그런 우월한 관점을 고수하려 하기에 소외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 포용과 배제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 멘토로서 행동함으로 자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이런 멘토로서의 행동을 통해 십자가에서 죄인인 인간을 수용하고 환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둘째,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발생하는 소외는 상대적 우월함 이외에, 교회에서 사용하는 직분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즉 나는 사역하면서 기신자 또는 새신자가 교회에서 불려지는 호칭인 직분의 유무, 그리고 그런 호칭이 기능상의 역할이 아닌 교회 내 위계를 상징하는 호칭으로 이해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런 모습은 레비나스의 견해에 따르면 자아 동일성의 사고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인간은 이런 자아 동일성의 사고를 통해 타자를 획일화하고 타자의 고유성을 소멸시키고 타자를 사물화시킨다. 그런데 레비나스에 의하면 인간이 이런 자아 동일성의 사고에서 벗어나 타자를 주제 이상의 존재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얼굴'이라 표현하였다. 신의 현현으로서의 타자의 얼굴이 나에게 호소함으로 주체 중심주의라는 전체성을 통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정의롭지 못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만든다. 이를 위해 나는 O 교회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호칭 바꾸기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교회의 고전적 호칭을 걷어 버림으로 기신자는 새신자를 향한 타자로서의 무한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리면, O 교회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기신자와 새신자 모두는 호칭 바꾸기를 통해

[82] 강영안, "레비나스: 타자성의 철학," 147-66.

기호의 존재 방식에서 언어의 존재 방식으로 존재 양태를 바꾸게 하였던 것이다.[83] 결과적으로 직분이라는 기호 속에 감추어져있던 폭력성이 드러남으로 참된 회개를 거쳐 무한한 타자를 만남으로 타자를 진정한 주체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시니어 아카데미에 참여한 기신자는 모임 후 교회 또는 사회 내 자신의 위치에 따른 모임으로 자연스럽게 흩어짐으로 그런 모임에 소속되지 못한 새신자는 소외감을 경험하였다. 기신자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 속으로 흩어지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새신자가 소외된다는 점에서 나는 이것을 구조적 차원에서 보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새신자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성경에서 예수가 베풀었던 환대의 식탁[84]에 대한 데리다의 해석을 차용[85]하였다. 데리다는 환대를 초대적 환대와 방문적 환대로 나누었으며, 예수는 초대적 환대에서 방문적 환대로 옮겨갈 것을 촉구하였다. 즉 인간 삶의 안정성은 주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 그 타자를 넘어선 궁극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다. 조건적 환대와 무조건적 환대에 대한 데리다의 개념을 통해 나는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환대의 식탁을 통해 기신자와 새신자 모두 향유의 주체에서 책임적 주체로, 나의 욕구를 희생함으로 타인의 고유성이 실현되도록, 그리고 타자가 내 식탁의 주인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데리다와 레비나스의 이론을 프로그램에 적용하였다. 프로그램을 통해 환대에 식탁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한 자기애적 환대 또는 사회적 지위나 직분 등으로 형성된 공유적 유대감을 느끼는 상호적 환대가 무조건적 환대가 되었음을 참여자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83 전동열, “하이데거의 존재론에서 기호의 존재 방식과 ‘존재의 집’으로서의 언어,” 91-115.

84 누가복음 14 장 12-24 절 참고.

85 정승우, “칭의론에 나타난 환대의 윤리,” *대학과 선교* vol. 40 (2019): 129-59.

넷째, 시니어 아카데미에 참여한 기신지와 새신자 사이에는 영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과 재미를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기신자 입장은 시니어 아카데미를 통해 신앙의 성장과 남은 삶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고 자신의 삶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기억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갖고 있지만, 이런 필요가 다른 공동체에서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왔다. 그러나 새신자 입장은 평생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서 즐거움과 재미를 통한 친교의 시간을 원했으며, 예배와 성경 공부 그리고 기도 모임 등은 교회 내 다른 공동체를 통해서도 충분히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 시니어 아카데미에 찾아왔다. 둘 사이에는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신앙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기에 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 중심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장을 만든 레비나스의 이론과 호미바바가 혼종적인 주체가 위치한 곳을 '제 3 의 영역'으로 설명했던 개념을 차용하여, 환대의 식탁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재미를 추구하는 그룹과 영성을 추구하는 그룹이 공존하는 이 제 3 의 영역은 서로를 타자로 인식하는 주체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과 정체성을 발견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마치 위니컷이 주장한 중간 영역에서 아이가 창조적인 놀이를 통해 창조성이 만들어진다고 보았던 것처럼 제 3 의 영역인 환대의 식탁에서는 재미와 영성이 마치 페리코레시스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공간[86]이 되도록 하였다. 재미를 추구하는 그룹과 영성을 추구하는 그룹을 위계적 관점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상호 배려를 통해 서로를 수용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86] Moltmann, *Theology of Play*, 18-19.

이상과 같은 네 가지 실천을 통해 기존에 존재하던 갈등에서 벗어나 자기를 위한 향유의 주체에서 타자를 위한 책임적 존재로,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타인의 고유함과 존재가 드러나도록 만들며, 나와 타자 사이의 동등한 존재감에서 타자를 주인으로 여기는 마음을 조금은 경험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87] 예수는 선생이었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한 기신자들은 과거에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의 직분을 활용하였던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새신자를 주인으로 여겨야 겠다는 기존과는 다른 사역의 목표를 발견하게 되었고, 예수가 죄인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였던 것처럼 새신자들이 활동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도록 기존 신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새신자를 위한 책임적 존재가 가치있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완전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비교하면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다. 그렇지만,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과 같이, 환대의 경험은 개혁의 방향, 새로움의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

[87] 문성훈, "타자에 대한 책임, 관용, 환대 그리고 인정," 402-3.

Chapter V

결론 및 제언
(Conclusion and Suggestion)

한국사회가 점점 고령화되면서 한국교회도 실버세대의 목회도 중요한 관심이 되고 있다. 나는 O 교회에서 진행하는 실버세대 아카데미를 통하여 실버세대가 소외와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관심했다. 이 프로젝트는 그런의미에서 실버세대의 목회의 방향을 잡아주었다. 특별히 실버세대 아카데미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어떤 실천적 목회를 통하여 실버세대가 행복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이라는 배움의 장에서 질적연구라는 도구를 통하여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프로젝트를 위한 질적연구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 그러나 삶의 치열한 현장속에서 부딪치는 갈등과 문제, 차별과 소외를 해결하는 목회와 학문적 연구를 둘다 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였음을 고백한다. 질적연구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선입관으로 굳어져 있는 목회적 관점에 변혁을 일으켰다. 질적연구는 교회안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라는 관계를 해체하고 연구참여자인 교인들을 직접 만나 그분들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였다. 그렇게함으로써 교인들이 바라고 희망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였다. 또한 교회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목회자 입장이 아닌 교인의 입장에서 해석하게 되면서 나의 목회적 관점과 방향도 변하게 되었다. 나는 실버세대에 대한 목회적 관심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교회 속에 있는 실버세대 역시 노년기의 일반적인 특성인 내향성, 수동성, 경직성, 및 의존성[88] 등이 있을 것이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

[88] 김동기, *(사회 적응의) 노인심리학* (서울: 학지사, 2010), 58-83.

하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나는 많은 깨달음과 성취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실버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신학과 이론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실버세대의 생각과 행동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더 가까이 느껴졌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나는 질적연구의 한 방법인 현상학적 방법 중에서 심층 면담의 내용과 분석을 통해 네 가지를 발견했다. 첫째는 실버세대 시니어아카데미 안에서 소외받는 새신자이다. 둘째는 실버세대 아카데미 안에서 교회의 직분에 따라 차별받는 노년세대이다. 셋째는 실버세대 아카데미 안에서 학력과 사회적 지위로 인해 차별을 경험하는 노년세대이다. 넷째는 실버세대 아카데미 안에서 영성을 추구하는 그룹과 재미를 추구하는 그룹간의 갈등이다.

실버세대 아카데미에 오신 분들은 교회공동체 안에서 신앙과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기대하였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는 보이지 않는 소외와 차별과 갈등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 공동체 안에서 주변인이라고 고백했고 더 이상 친밀해질 수 없다고 토로했다. 처음 공동체안에 들어왔을 때의 기대와 설레임은 사라지고 소외와 차별과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소와와 차별과 갈등을 느끼면서도 많은 실버세대 아카데미 성도는 공동체안에서 관심받고 사랑받기를 갈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다. 하지만 실버세대 시니어아카데미 공동체의 기존 직분자들은 새신자들과 함께 지내기를 원치 않았으며 그들을 배제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새신자들과 직분이 없고 경제적으로 연약한 구성원들은 이러한 차별과 소외에 대해 그저 침묵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실버세대 아카데미 안에서 소외와 차별로 인해 자신들의 설 자리를 잃고 주변부에서 밀려나버린 구성원들에게 교회 공동체의 무조건적이고 적극적인 환대를 제안하는 목회적 방향과 신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기존 신자들과 스텝들은 새신자를 환대하는 활동 속에서 환대받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였다. 상처입은 사람들,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 병든 사람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시니어 공동체안에 있지만 소외당하고 차별받는 노인들을 돌보면서 그들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난다. 그 놀랍고 사랑스러운 일이 교회 공동체와 실버세대 시니어아카데미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은 무조건적인 환대에서부터 시작된다.

다음으로 실버세대 시니어아카데미 안에 있는 이러한 소외와 차별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시니어 아카데미 구성원들이 배제와 수용을 통해 거리두기와 가까워지기 원했다. 기신자들끼리는 거리두기를 통해 더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도록 했다. 반면에 기신자와 새신자들은 가까워지기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했다. 이 실천방법은 예수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사용한 방법이다.

요한복음 5 장 5-6 절이다: *거기에 38 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앓아 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네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말 성경)

여기에서 예수는 38 년동안 병을 앓고 있는 자와 가까워지기 위해 그의 곁에 다가갔다. 그리고 38 년된 병자를 고쳤다. 예수는 종교지도자와 율법학자들과는 거리두리를 했지만, 연약하고 병든자들에게는 가까이 다가갔다. 요한복음 6 장 15 절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왕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말 성경)

예수는 정치적 목적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자들은 거리두기를 통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였다. 가까워지기와 거리두기의 성경말씀을 통해 나는 실버세대 시니어아카데미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거리두기를 해야 할 대상과 가까워져야 할 대상을 알려 주었다. 그리고 다 함께 실천해 보았다. 이 실천을 통해 시니어아카데미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차별과 소외는 사라졌다. 어색했던 관계가 가까워지기를 통해 친밀해졌기 때문이다.

둘째는 호칭의 변화를 통해 교회 직분자와 직분없는 자 사이에 차별이 사라졌다. 지금까지 실버세대 시니어아카데미 안에서 서로를 부를 때 이름대신 직분을 불렀다. 그래서 직분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소외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시니어아카데미 안에서는 이름을 부르기로 하였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아닌 OOO 씨라고 부르게 하였다. 처음에는 무척 어색하였지만 이름을 부르며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깊이 알아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아카데미 공동체 안에서 환대의 밥상 공동체를 통해 갈등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동안 시니어아카데미는 1부 예배 2부 강의 및 나눔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예배와 강의를 듣고 그냥 끝나다 보니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오해가 있었다. 나는 예수께서 베푸셨던 환대의 밥상을 시니어아카데미에 시도해 보았다.

예수도 마태복음 26장 26-27절에서 제자들을 환대의 식탁으로 초대했다: *그리고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우리말 성경)

예수는 환대의 식탁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여 그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알렸다. 환대의 식탁은 친밀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호미바바는 혼종적인 주체가 위치한 곳을 '제3의 영역으로' 설명한다. 제3의 영역은 새로운 가능성과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곳으로 서로를

알아가고 친밀해지기 좋은 공간이다. 이 환대의 식탁을 통해 실버세대 시니어아카데미 공동체는 친밀해졌고, 서로를 깊이 알게 되었다. 시니어아카데미 스탭으로 섬기는 한분은 이렇게 말했다. “처음 식사모임까지 시니어아카데미에서 진행한다고해서 마음이 어려웠다. 사역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식사모임을 통해 분위기가 훨씬 따뜻해졌음을 느낀다.” 식탁이 주는 놀라운 사랑의 힘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나는 이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대안적인 실천프로그램들을 통해 O 교회 실버세대 아카데미가 교회공동체 안에서 환대를 경험하며 인생의 모든 갈등과 문제들을 담대하고 적극적이며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바란다. 아울러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여 누군가를 소외시키거나 차별하지 않은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부록 A: 연구참여동의서
(Appendix A: Informed Consent Form)

저는 미국에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ology)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 중에 있는 이정환 목사입니다. 이번 목회학 박사과정을 통하여 “온누리교회 실버세대 시니어 아카데미 안에 나타나는 갈등 치유와 환대적 목회돌봄에 관한 질적 연구: 환대 신학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은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김용환 박사(주심, yonghwan.kim@cst.edu), 김남중 박사(부심, njkim@cst.edu)입니다. 논문과 관련하여 교수님들과 연락을 원하신다면 이메일을 통하여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신다면, 귀하는 인터뷰에 약 1 시간 정도 참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인터뷰 진행과정 동안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음되고 필사될 것이며, 연구를 위해 녹음된 자료와 필사본은 논문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논문 연구가 마무리되고 나면 인터뷰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은 파기될 것입니다. 귀하는 연구 참여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며, 이와 더불어 이름과 주소, 이메일 등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들은 연구자료가 수집되는 기간 동안만 보관된 후 연구가 종료됨과 동시에 폐기될 것입니다. 또한, 연구와 관련된 모든 개인정보들은 모두 익명으로 기재함으로써 귀하의 권익과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연구 참여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귀하는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거절할 수 있으며, 또한 어느 때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 철회는 귀하가 가지고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연구참여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연구와 관련한 질문이 있거나 귀하의 이메일을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면 연구자 이정환 목사의 연락처(***-****-****)나 이메일(967790@hanmail.net)로 연락 바랍니다. 이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기관 윤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검토를 받아왔으며, 이 연구의 연구번호는 (연구번호, IRB 회장이 연구번호를 연구자에게 부여할 것입니다.) 입니다.

만약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이 연구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면 기관윤리 심사위원회 회장, 김두영 박사의 연락처인 ***-****-**** 혹은 viastar@hanmail.net 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원하실 경우 익명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위에 설명된 정보를 읽었습니다.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나의 모든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 양식에 대한 사본을 받았습니다.

연구참여자 이름: 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

연구참여자의 서명: ________________

연구자의 이름: ________________

연구자의 서명: ________________

참고문헌
(Bibliography)

〈한국어 단행본〉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21세기 영구적 평화를 찾아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강사문. *성경에 나타난 노인이해.* 서울: 말씀과 만남, 2004.

강성률. *서양철학사 산책.* 서울: 평단문화사, 2009.

권중돈.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2005.

김성철. *교회사회복지 실천론.*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2003.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Ⅰ: Bricoleur.* 2nd ed.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4.

_____. *질적 연구 방법론 Ⅱ: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_____. *질적 연구 방법론 Ⅳ: Case Studie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노경묵. *노년의 삶과 성경적 상담-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노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7.

맹용길. *노인복지 목회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서근원. *공동체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시대의 삶과 문화와 교육, 그리고 질적 연구.* 파주: 교육과학사, 2013.

윤의근. *노인학교 프로그램.* 대구: 신암평생교육원, 2002.

이정효. *기독교노인교육.*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2.

임창복. *교회노인교육.* 서울: 한국기독교교육교역연구원, 2008.

최샛별. *(문화사회학으로 바라본) 한국의 세대 연대기: 세대 간 문화 경험과 문화 갈등의 자화상.*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최성훈. *고령사회의 실버목회.*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7.

허정무. *노년학 개론.* 서울: 도서출판 하우, 2001.

〈영어 단행본〉

Berryman, Jerome W. *Teaching Godly Play: How to Mentor the Spiritual Development of Children.* Denver: Morehouse Education Resources, 2009.
Moltmann, Jürgen. *Theology of Play*. New York, NY: Harper & Row Publishers, 1972
LaCugna, Catherine M. *God for Us: The Trinity and Christian Life*. New York, NY: HarperOne, 1991.
Newman, Elizabeth. *Untamed Hospitality: Welcoming God and Other Strangers*.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7.

〈학위논문〉

강채은. "통전적 돌봄을 위한 교회노인복지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교회 노인학교 연합회를 중심으로." M.A. thesis,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08.

김은희. "교회의 노년 세대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M.A. thesis, 고신대학교, 2001.

남명희. "한국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가톨릭 시니어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M.A. thesis,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9.

홍혜자. "대학평생교육원 노인교육 프로그램 사례분석: S 여대 '실버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M.A. thesis, 아주대학교 대학원, 2006.

〈번역서〉

Applewhite, Ashton. *This Chair Rocks 나는 에이지즘에 반대한다.* Translated by 이은진. 서울: 시공사, 2016.

Bonhoeffer, Dietrich. *Nachfolge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의 제자직.* Translated by 손규태 and 이신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Cruikshank, Margaret. *Learning to Be Old: Gender, Culture, and Aging 나이듦을 배우다: 젠더, 문화, 노화.* Translated by 이경미. 파주: 동녘, 2016.

Cox, Harvey. *바보제.* Translated by 김천배. 서울: 현대사상사, 1973.

Irle, Mathias. *Alterwerden für Anfanger 노인은 늙지 않는다.* Translated by 김태희. 서울: 민음사, 2015.

Kimble, Melvin A., Susan H. McFadden, James W. Ellor, and James J. Seeber. *Aging, Spirituality, and Religion 노화 영성 종교.* Translated by 노인사목연구위원회, 김열중, and 이순주. 서울: 소화, 2011.

Koenig, John. *New Testament Hospitality 환대의 신학.* Translated by 김기영.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2002.

Pohl, Christine D. *Making Room: Recovering Hospitality as a Christian Tradition 손대접.* Translated by 정옥배. 서울: 복 있는 사람, 2002.

Russell, Letty M. *Just hospitality: God's welcome in a world of difference 공정한 환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환영.* Translated by 여금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Stott, John. *New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Translated by 정옥배. 서울: IVP, 2005.

Tournier, Paul. *Apprendre a Vieillir 노년의 의미.* Translated by 강주헌. 서울: 포이에마, 2015.

Volf, Miroslav. *Exclusion and Embrace 배제와 포용.* Translated by 박세혁.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12.

〈학술지 논문〉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의 귀환: 21 세기, 왜 코즈모폴리터니즘인가." *기독교사상* vol. 663 (March 2014): 198-209.

_____.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함께 살아감'의 세계를 향하여." *기독교사상* Vol. 669 (September 2014): 202-19.

강영안. "레비나스: 타자성의 철학." *철학과 현실* vol. 25, no. Summer (June 1995): 147-66.

강진아 & 정연득. "해석학적 놀이로서의 목회상담." *신학사상* vol. 183 (2018): 237-58.

김광기. "관용과 환대, 그리고 이방인: 하버마스와 데리다를 중심으로." *현상과인식* vol. 36, no. 4 (December 2012): 141-70.

김기철. "놀이로 구현되는 하나님 형상." *신학사상* vol. 160 (March 2013): 75-108.

김선일. "통일의 시대를 위한 환대의 실천신학." *복음과 실천신학* vol. 50 (February 2019): 9-39.

김애령. "이방인과 환대의 윤리." *철학과현상학연구* vol. 39 (December 2008): 175-205.

김유준. "아우구스티누스와 조나단 에드워즈의 삼위일체론 비교 연구." *韓國敎會史學會誌* vol. 37 (April 2014): 207-39.

김은정. "환대적 학습환경과 기독교교육." *인문학논총* vol. 33 (October 2013): 231-48.

문성훈. "타자에 대한 책임, 관용, 환대 그리고 인정: 레비나스, 왈쩌, 데리다, 호네트를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vol. 21 (April 2011): 391-418.

박재필. "기억의 매개로서 식탁에 대한 연구: - 제의적(祭儀的) 성만찬을 일상의 성사(聖事)로 이루기 위한 목회적 방안." *장신논단* vol. 52, no. 3 (September 2020): 195-219.

반재광. "누가의 '환대의 식탁' 연구." *신약논단* vol. 24, no 3 (September 2017): 553-85.

손영창. "프랑스 문화: 데리다의 무조건적 환대와 타자성." *프랑스문화연구* vol. 24 (May 2012): 97-127.

손호현. "몰트만의 놀이의 신학." *신학사상* vol. 137 (2007): 129-159.

_____. "한 멋진 삶의 풍경화: 유동식의 예술신학연구." *한국문화신학회 논문집* vol. 10 (November 2007): 94-129.

오세경. "근거이론: 광산에서 보석캐기." In *질적연구의 즐거움=Qualitative research,* edited by 김영순, 305-35. 서울: 창지사, 2018.

윤영훈. "놀이로 세우는 공동체-문화시대 신학과 목회를 위한 놀이의 재발견," *신학과 선교* vol. 54 (2018): 193-232.

이후정. "이웃 사랑과 환대의 영성." *기독교 사상* vol. 674, no. 2 (February 2015): 206-14.

임희모. "타자와 환대의 선교."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 56, no. 1 (April 2008): 189-211.

전동열. "하이데거의 존재론에서 기호의 존재 방식과 "존재의 집"으로서의 언어. *獨逸文學* vol. 61, no. 1 (2020): 91-115.

정경호. "낯선 손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환대의 밥상." *기독교사상* 657 (September 2013): 80-91.

정승우. "칭의론에 나타난 환대의 윤리." *대학과 선교* vol. 40 (2019): 129-59.

_____. "환대의 밥상, 환대의 신학삶." *신학과 목회* vol. 34 (November 2010): 177-209.

Mouthaan, J. N. "Besprekingsartikel: Ecclesia semper reformanda: modern of premodern?" *Documentatieblad Nadere Reformatie* vol. 38, no. 1 (2014): 86-89.
Shaw, Perry W. H. "A welcome Guest: Ministerial Training as an Act of Hospitality." *Christian Education Journal Series* vol. 8, no. 1 (Spring 2011): 9-14.

〈기타자료〉

진주영. "호모 사케르의 윤리: 이창래 (Chang-rae Lee)의 [제스처 라이프 A Gesture Life] 와 [생존자 The Surrendered]에 나타난 여성캐릭터 연구." In *전남대학교 글러벌디아스포라 연구소 국내학술회의,* 전라남도, 2013.

21 세기 정치학대사전. "고령화." Accessed January 2. 202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26164&cid=42140&categoryId=42140.